



무릇 불법을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별도의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 마조록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어름호·통권 제137호·2016년 7월 30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현광 / 편집위원·현광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현광(동경觀瞻) / 삽화·회재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

雲門

불기 2560년
여름호
통권 제137호
雲門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무더운 더위 속에서 감로수처럼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같이… / 대교과 희재
- ❖ 도반스님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화합하며 수행정진 합시다. / 대교과 일법
- ❖ 경 읽는 소리가 또옥또옥 빗방울 떨어지듯 상쾌한 여름입니다. / 사교과 현우
- ❖ 몸과 말과 마음, 조심하며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교과 진과
- ❖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 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교과 지안
- ❖ 시원한 물놀이가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등골이 오싹! 오싹! ^_^ / 사교과 시우
- ❖ 싱그럽게 피어나는 채소들과 반짝반짝 빛나는 보리동 열매처럼 눈부신 운문사의 여름이 아름답습니다. / 사집과 도행
- ❖ 얼굴 들리는 곳곳마다 운문사 도량이 그림 같아요. 닮아서 몸도 마음도 모두모두 맑고 아름다워지길. / 사미니과 무여
- ❖ 은사스님이 왜 강원을 보내셨는지 알게 되는 불철이었습니다. / 사미니과 도현下
- ❖ 괜찮아…… 치문이야… / 사미니과 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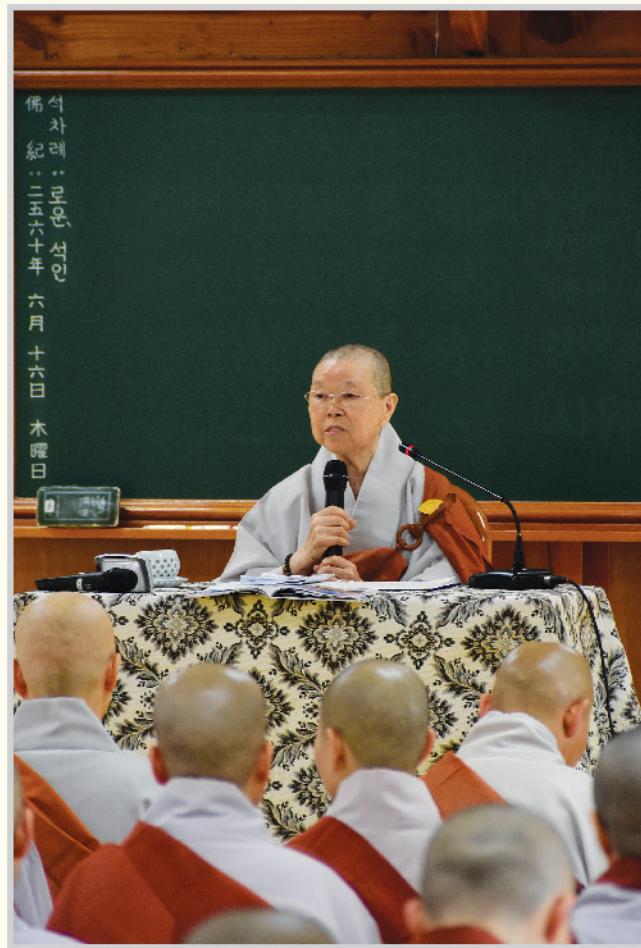
雲門

목차

- | | |
|--|--|
| <p></p> <p></p> <p></p> | <p>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p> <p>04 죽림현 서로서로 키워줍시다 평성</p> <p>06 교수논단 나한신앙의 고찰 ② 일진</p> <p>09 想 수행 혜운</p> <p>10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삶의 또다른 이름, 여행 운산</p> <p>15 깨달음으로 가는 길 거짓 바보 편집부</p> <p>16 자유기고 1 고귀한 진리, 괴로움에 대한 고찰 혜운 / 47회 졸업생</p> <p>18 학인논단 불교와 애니메이션의 만남 능가</p> <p>23 여름불교학교특집 온 몸과 온 마음으로 通하다~!! 동우</p> <p>28 자유기고 2 완전한 치유로 이끄는 길(道), 인과 법칙에 대한 성찰 임동규</p> <p>32 차례법문 下心 도림</p> <p>34 탐방 지금, 여기서 하는 보살행 현담</p> <p>38 수행의 두레박 하나 불법 속에서의 변화 도현上</p> <p>40 수행의 두레박 둘 견디어 참고 기다립니다 동호</p> <p>42 수행의 두레박 셋 매 순간이 수행이다! 희경</p> <p>46 나를 발견하다 바람의 후예</p> <p>50 이 한 권의 책 다만 그 마음에 앉아 있어라 동우 / 대학원</p> <p>52 운문논평 왜 사랑해야 하나 편집부</p> <p>54 운문소식</p> <p>55 등불 금당金堂 편집부</p> |
|--|--|

서로서로 키워줍시다

명성 / 윤문사승가대학원장



〈2016년 회주스님 특강〉

산들이 어느새 문을 닫고 짙은 녹색의 부드러운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었는가 싶더니 어느새 새까만 벼찌가 나무에 그득하고, 땅에 떨어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 주위를 겸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대중스님들도 열심히 자신의 열매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까? 벌써 새들이 다른 곳으로 씨를 물어다 날랐다구요?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남들도 우리를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스님’은 ‘師僧’의 중국발음이 변하여 ‘스승’이 되고, ‘스승’을 높여 부르는 말로 ‘스승님’의 준말입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우리 모두가 ‘스승님’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운문사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教學하고 삶을 나누며 모두가 스승이 되는 教育場입니다. 教育이란 ‘이끌어 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끌어 내다’는 의미입니다. 그 장점에 물을 주고 보살피고 성장시켜 그 사람이 한 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고 마침내는 대중에 회향하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됩니다. 자연히 단점은 차츰 소멸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찾고 바라보아야 할 점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이미 드러났다면 물을 주어 키우는데 一助를 하고, 아직 모르고 있다면 그 장점을 끌어내어 줍시다. 각자는 고유한 다아이몬드 같은 장점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걸어온 수많은 생의 길이 다 다르고, 현재 함께 수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가 견게 될 새로운 한 걸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평가에는 분명 평가하는 사람의 업식이 작용하여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내 판단 기준이 반드시옳다고 믿고 있다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깊은 두레바줄로 깊은 우물을 펴올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이를 안다고 하면 誤算입니다. 그러니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려 애쓰고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은 교육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도반이 성장하면 더불어 나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겠지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어 흘러 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전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은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란다.

그의 번뇌는 자꾸만 불어간다.

훌륭한 스승은 제자의 지난 허물을 너그럽게 덮어 줄 줄 알고, 차별 없이 모두를 包容합니다. 우리도 ‘스승님’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내 옆에 있는 도반을 품어주는 수없는 수행을 통해 세상을, 인류를 품을 수 있고 마침내 ‘나’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나한신앙의 고찰 2

일진 / 윤문사승가대학장

목 차

- I. 나한의 의미
- II. 나한신앙의 유래
- III. 나한신앙의 유입과 특성
- IV. 나한신앙도량**
- V. 나한신앙의 유통

IV. 나한신앙도량

(1) 도량의 뜻

구체적인 나한신앙도량을 서술하기 전 도량의 뜻부터 살펴보면 도량은 범어 bodhi-manda, 보리도량菩提道場이라고도 하며 불타성도의 장소를 일컫는다. 불도수행佛道修行을 위한 구역, 당우의 유·무를 막론하고 밀행의 불사佛事를 닦는 곳을 말하며 보리菩提를 이루는 계기가 되는 발심수행의 장소이다. 또, 도량이 수행을 위한 별당別堂의 의미

로 쓰일 때가 있으며 사원寺院의 별명으로도 쓰인다. 혹은 무예武藝를 연마하는 곳을 도장道場이라고 한다. 도량의 원래 음은 “도장”이지만 종래로 불교에서는 오음吳音을 따라 도량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상식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절 전체를 도량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절을 참회도량이라고도 말해왔다. 그렇다면 나한도량이라는 말은 그 사원에 특별히 나한이 모셔져 있고, 예로부터 나한신앙에 관한 유래와 영험, 설화 등을 중심으로 나한도량이 전해지고 있다. 관음신앙도량, 지장신앙도량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나한신앙도량

① 강화 보문사 나한도량

대표적인 나한신앙도량을 살펴보면 먼저 강화 보문사 도량을 설립 설화와 함께 들 수 있다. 강화 보문사는 우리나라의 4대 관음도량이면서 또한 나한도량으로 유명하다. 보문사의 천연동굴법당은 지방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된 대표적인 나한도량이다. 나한상이 모셔진 동굴법당은 밖에서 보면 3개의 흥예문으로 구획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반월형 좌대에 탱주擡柱를 설치하여 그 사이에 21개의 감실이 마련되어 있다.

중앙에 석불을 모셔 놓았고, 각각의 감실에는 높이 30cm 정도의 석조 나한상을 모셨는데 나한상을 모신 설화에 의하면 옛날(635년) 삼삼면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 속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아닌 인형 비슷한 돌덩이 22개가 건져졌다. 실망한 어부는 그 돌덩이들을 즉시 바다에 던지고 다시 그물을 쳤지만 역시 건져 올려진 것은 그 돌덩이였으므로 다시 바다에 던졌다. 그런데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서 그것은 천축국에서 보내온 불상인데 그 귀중한 것을 바다에 두 번이나 던졌다고 책망하면서 내일 다시 돌덩이를 건지거든 명산에 봉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 날 22개의 돌덩이를 건져 올린 어부는 노승이 일러준 대로 낙가산으로 옮기는데, 현재의 석굴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이 무거워져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이곳이 신령스러운 명산이라고 생각하고는 풀 안에 단을 놓고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② 부산 연제구 금련산 마하사

마하사는 아도 화상 창건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한도량이다. 마하사는 16나한이 모셔져 있는 도량으로 유명하며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조선 초엽의 어느 해 동짓날 공양주가 새벽 일찍 동지 꽃죽을 쑤려고 부엌으로 나가 불씨를 찾았으나 이미 사그라지고 없어졌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꽃을 췄어 솔에다 앉혀놓고 불씨를 얻으려 아랫마을 산지기 집으로 갔더니 산지기 말이 조금 전에 절의 동자가 와서 불씨를 달라기에 불씨도 주고, 꽃죽도 먹여 보냈다고 하는 것이다.

절에는 동자도 없고 더구나 불씨를 얻으려 보낸 일이 없으므로 공양주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부엌으로 와보니 아궁이에 불씨가 별정계 있었다.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불을 불여 꽃죽을 쑤어 나한전에 올리려 갔더니 16나한 중 오른쪽에서 세 번째 나한 입술에 꽃죽이 묻어 있었으므로, 그때서야 불이 없는 줄을 안 나한이 동자로 화신하여 아랫마을에서 불을 얻어와 죽을 쑤게 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영험적 설화다. 그 밖에도 종을 울리게 한 영험, 참새 쫓은 설화 등 신비한 영험 설화들이 간직된 대표적 나한신앙도량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나한산 만연사

만연사는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79번지 만연산에 있다. 21교구본사 송광사의 말사인 이 절은 고려 화종 4년(1208)에 만연萬淵 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창건에 얹힌 설화는 만연 선사가 무등산 원효사에서 수도를 마치고 조계산 송광사로 돌아가는 길에 무등산의 중봉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의 만연사 나한전이 있는 곳에 이르러 몹시 피곤하여 잠이 들어버렸다. 잠 속에서 16나한이 석가불 모실 불사를 하고 있는 꿈을 꾸다가 깨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어느새 눈이 내려 백설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만연 선사 누웠던 자리만 녹아 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토굴을 짓고 수행하다가 만연사를 건립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나한의 신통력으로 알려진 설봉산 석왕사의 나한설화, 진북 대사와 나한의 신통에 얹힌 이야기와 오백나한 절로 잘 알려진 팔공산 거조암, 완주 송광사, 광주 중심사, 함월산 기림사, 호거산 운문사 등이 5백나한을 모신 도량으로 유명하다. 운문사 오백나한과 사리암 나한도량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V. 나한신앙의 유통

나한신앙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16제자, 500



〈한 분의 이리한을 모신 운문사 산내암자 사리암. 나한존자 기도처로 알려져 있음〉



〈사리굴, 운문산 4대 굴의 하나로 이곳에 머무는 사립 수민큼 먹을 쌀이 나왔으나 쌀이 더 나오게 하려고 구멍을 넓히자 쌀 대신 물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대만 불광사 오백아리한〉

제자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면서도 그 나한들의 회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자기수행의 선종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교종이 아닌 인간의 현실에 아우러진 신앙이라 할 수 있으며 고단한 삶의 고난을 벗어나게 하려는 민중적 신앙이다. 엄숙하고 근엄하고 자애로운 전형적 제불보살과는 달리 인간의 성냄과 웃음, 익살스러움, 때로는 욕구까지도 궁정하는 나한의 모습에서는 원초적인 기도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하늘을 우러러 참회하고, 자연 재해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며,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좌선 수행이나 간경수행에 앞서

다급한 소원을 들어주고 성취하게 될 누군가 무엇인가를 절실히 찾는다. 이렇게 순수하고 소박한 애원을 감지하고 받아주는 것이 나한의 신통력이며 영험이다. 따라서 넉넉하고 푸근한 보살보다는 깔끔하고 까다로운 소위 부정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나한의 특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반신통세소희
那畔神通世所稀
행장현화임시위
行藏現化任施爲
송암온적경천검
松巖隱迹經千劫
생계잠형입사유
生界潛形入四維

나반존자의 신통력은 세상에 드문 바라
나통과 감춤을 마음대로 하시네
소나무 바위틈에 숨어서 천년을 지내시고
중생계에 가만히 나투어 사방에 다 계시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애환의 중생과 함께하는 나한신앙을 예경이나 불공기도를 통해 존속되고 있는 순수 구복求福 위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과학 불교의 현대에 어떻게 존속 유통시켜야 할지는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나한신앙사, 도단양수, 가람산방, 2002
- 나한이야기, 동양의 문화와 문화재8호, 불교서원, 2006
- 오백나한, 진효 스님, 휴먼 앤 북스, 2002
- 아라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일본교토대학, 이필원, 2007
- 아라한 개념의 발전과 전개, 이필원, 인도철학 제24집, 2008
- www.yonghwa.or.kr

화설을
나그네(한국)
손마다(한국)

상학이 수행자인
해설이 되면
지역이 되면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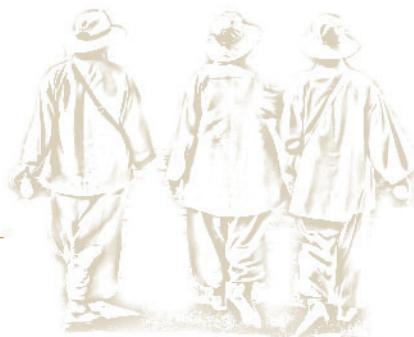
현운



삶의 또다른 이름, 여행

– 북유럽 여행을 다녀와서(2016년 5월 18일~5월 27일) –

운산 / 운문사승가대학감



우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노구의 스승님을 모시고 북유럽 여행길에 나섰다. 인도를 비롯하여 불교 유적지가 많은 아시아를 여행할 기회는 더러 있었지만, 웅장한 자연과 고풍스런 정취,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로의 여행은 처음이어서 더욱 기대가 되었다.



첫째날인 5월 18일, 편란드 헬싱키를 경유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는 코펜하겐은 고풍스런 교회와 아름다운 궁전 등 곳곳이 디자인과 감성이 살아 있는 명소로 가득하다.

둘째날인 19일 덴마크에서 상인의 항구라 불리는 코펜하겐 시내 관광으로 첫 여정을 시작했다. 4채의 로코코풍 건물로 이루어진 왕실의 주거지 아말리엔보 궁전, 코펜하겐의 대표적인 광장으로 중세의 고풍스러움을 자아내는 시청사 앞 광장, 코펜하겐의 중심 스트뢰에 거리,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동화 안데르센 거리와 안데르센 동화의 주인공 인어공주 동상, 덴마크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피온 분수대, 그리고 세 개의 섬 위에 지어져 숲과 호수, 우거진 녹음, 새하얀 백조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프레드릭스보그 성의 정원을 둘러보았다.

현지가이드는 만나자마자 소매치기를 주의하라는 당부부터 했다. 관광철만 되면 동구권에서 소매치기들이 살기 좋은 북유럽으로 원정 와서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며 가방을 앞으로 단단히 메고 주변을 잘 살피라고 주의를 주었다.

시청마당 한쪽에 보이는 안데르센의 조각상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멀리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웬지 신기하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개인으로 알려진 안데르센은 여행할 때마다, 투숙하는 여관에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 타고 내릴 밧줄을 준비해 다닐 만큼 소심중이 심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못하는 시선공포증도 있었다. 평생에 세 여성에게 차례로 연정을 느꼈으나 모두 거절당해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그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는 작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못생긴 외모 때문에 따돌림 당한 쓰라린 경험을 궁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덴마크에 대한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 같은 날 저녁 항공편으로 우리 일행은 자연이 만들어 낸 신비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노르웨이 베르겐에 도착했다. 20일에는 노르웨이 피오르드 관광의 전진기지인 아름다운 항구 도시 베르겐 관광을 했다. 유네스코 역사 지구인 브뤼겐 거리와 베르겐 항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어시장을 방문하고 베르겐에서 꼭 가봐야 하는 플뢰엔 산을 케이블 카로 다녀왔다. 약 2시간 이동하여 보스의 트빈네 폭포를 구경하고 스탈하임 전망대에서 커피를 마시며 망중한을 즐긴 후 구드방센으로 이동했다. 숲과 빙하가 가득한 아름다운 자연, 세련되고 현대화된 도시의 매력이 다함께 조화를 이루고, 과연 신들의 정원답게 아름답고 웅장한 가운데 한가로운 여유로움마저 선사한다.

21일에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길고(205Km) 아름다운 송네피요르드를 유람선을 타고 이동하여 플롬에 도착했다. 플롬에서 2시간이나 산악열차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뮐르달에 도착하였고, 약 3시간동안 이동하여 계일로로 갔다.

뉴질랜드의 남섬이나 노르웨이에서 볼 수 있는 특수지형인 피요르드(fjord)는 북극이나 남극에서 가까운 지역의 높은 산에 눈이 내려 겹겹이 쌓여 있다가 기온이 오를 때 녹아내린 물이 땅의 흙을 긁어내려 바다로 흘려보내어 깊게 파여진 지형을 말한다. 피요르드는 내륙으로 깊게 뻗어 있어 호수같이 보이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므로 사실상 바다인 섬이다. 피요르드 양안에는 수천 미터에 이르는 높은 산이 수직절벽을 이루어 산위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물이 거대한 폭포



〈덴마크 프레드릭스보그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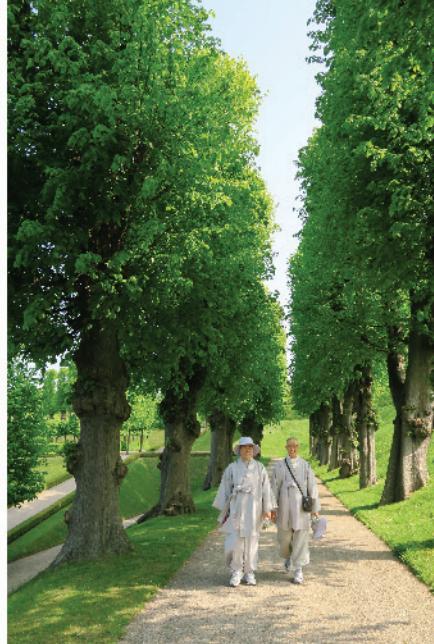
가 되어 흘러내려 장관을 이룬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긴 송네 피요르드는 수심 1000미터가 넘는 곳도 있을 만큼 깊어 수천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들이 내륙 200km까지 들어온다. 노르웨이 전국에 동맥처럼 얹혀 있는 피요르드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교통로가 될 뿐 아니라 목재 등 자원을 실어 나르는 운송로가 되고 있다.

여행 5일째인 22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로 이동하여 노르웨이 시청사 및 오슬로 최대의 변화가 카를요한스 거리를 관광하고,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 조각공원을 구경했다. 아주 오래 전 북유럽을 주름잡던 바이킹들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 이자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는 빼어난 자연풍광 못지않게 현대화된 도시의 깨끗하고 세련됨이 더해 그 매력을 한층 배가 한다.

6일째인 23일에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바이킹선이 전시되어 있는 바이킹 배 박물관과 노르웨이 최대 미술관으로 피카소와 마네를 비롯하여 뭉크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 미술관을 관람하고 동계올림픽의 훌멘콜렌 스키점프대를 관광한 다음 항공편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이동했다.

북유럽 일대의 게르만족들이 약탈자와 교역자의 두 얼굴을 갖고 세력을 확장한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약 300년간 바이킹 역사를 그 후손들은 자랑으로 여기는 듯 곳곳에 그 흔적을 남겨 놓고 있었다. 지금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노르웨이가 국민소득이 7만 8천 달러로 가장 높고 스웨덴과 덴마크가 우리나라 두 배 정도로 국민소득이 높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여 년 전 바이킹이란 이름으로 유럽을 휘젓고 다녔던 당시의 스칸디나비아는 사람 살기에 극히 열악한 곳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게르만족의 진취적 성격과 개척정신은, 유럽에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세계 역사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현대 역사에서 인류지능개발의 척도가 되는 노벨상을 제정한 것이 게르만족이었고 수상자의 절대다수도 게르만족이 차지했다. 그 후예들이 바이킹 조상들의 역사를 자랑할 만도 하다싶다.

7일째인 24일에는 북유럽의 베니스인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왕실의 호화 전함 바사호가 전시된 바사 박물관과 북유럽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시청사를 둘러보고, 돌길을 걸으며 한



가로운 감라스탄 거리를 산책했다. 과연 문화와 예술의 도시답게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1520년, 스톡홀름 대학살의 터인 대광장과 국왕의 세례식·대관식·결혼식이 거행되는 대성당, 역대 국왕들의 왕궁을 관광하고, 15시 실아라인 터미널 FERRY에서 선상뷔페로 저녁공양을 하고 배 안에서 1박을 했다. 찬란했던 영광도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의 아픔도, 유장한 자연 앞에 서니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깊은 탄성이 흘러나온다.

8일째인 25일에는 바다에 둘러싸인 발티의 땅, 핀란드에 도착하였다. 숲과 호수의 도시 헬싱키에서 북유럽 최대의 러시아 정교회인 우스펜스키 사원과 원로원 광장, 암석으로 된 독특한 디자인의 암석교회와 시청사, 핀란드의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 공원 및 핀란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세우라사리 야외민속촌을 관광했다. 세계적인 건축물과 유럽 특유의 디자인을 볼 수 있는 호사스러움을 맘껏 누릴 수 있었다.

9일째인 26일, 요새로 지어졌으나 박물관과 레스토랑이 있는 야외 유적지로 변모한 수오멘린나섬, 과일과 채소를 잔뜩 쌓아놓은 화려한 색채의 노점 천막들이 있는 마켓 광장을 구경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자연의 웅장함과 더불어 어딜 가도 그림 같은 풍경과 불거리가 다양했던 열흘간의 북유럽 여정은 그 어떤 종교적인 여행 못지않게 내적으로 더 충만한 상태가 된 느낌이다.

특히 이번에 여행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왕을 상징적으로 두고 있는 왕국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은 각료들이 하는 민주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임을 자랑하는 덴마크의 경우 국왕이 거처하는 궁전 바로 옆에 국회건물이 서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리는 날은 모두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여길 뿐이지 급료도 별로 없다.

국민들은 개인수입의 50%정도를 세금으로 내지만, 복지기금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니 아무도 불만이 없단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노르웨이에는 여성 주교가 탄생했고 정치가들 중에 약 40%가 여성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된 배경에는 국토에 의해 인구가 적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조건과 종교를 통한 국론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과거에는 인접국끼리 세력다툼을 한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적대감정이 없이 평화스럽게 잘 지내고 있게 된 데는 종교의 힘이 크다. 16세기에 부패한 기톨릭에 대한 개혁바람이 일 때, 북부 유럽에서는 마틴 루터가 주도한 루터교가 세를 확장하였다. 개신교의 또 다른 종파인 칼빈교는 중서부 유럽으로 확산되어 갔는데 루터교는 북유럽으로 전파되어 갔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국기를 자세히 보면 십자가를 기본문양으로 하고 색깔을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나라들은 루터교를 국교로 정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교회에서 일반신도들이 현금을 내지 않고 국가에서 교회유지비를 지원한다. 스웨덴은 학교교육에서 종교과목을 필수로 정해서 철저히 교육시킨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종교를 통한 의식통일을 이룬 때문에 세계평화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전쟁 때 스칸디나비아 3국이 의료봉사로 큰 기여를 한 것도 그런 기독교정신의 발휘라 볼 수 있다. ☺

거짓 바보

오조五祖 홍인대사弘忍大師의 「최상승론最上乘論」에

단능착파의但能着破衣하고, 다만 능히 헤어진 옷을 입고,
 찬추손~~狼瘡瘻~~하며, 거친 밥을 먹으면서,
 요연수본진심了然守本眞心하고, 요연了然히 근본 참마음을 지키고,
 양치불해어佯癡不解語하라 말귀 못 알아듣는 거짓 바보가 되어라.

양병佯病은 거짓으로 아픈 척, 꾀병을 말하고,
 양치佯癡는 거짓으로 어리석은 척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똑똑한 척하면 수행자로서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바보처럼 살면,
 최생기력이능유공最省氣力而能有功
 가장 힘을 덜고서도 효과적으로 정진할 수 있으니,
 최고로 훌륭한 수행인이다. 홍인 대사 법문입니다.
 바보처럼 살면 말 많이 안 해도 되고,
 똑똑한 체하지 않으면 시비할 것이 없다.
 있으나 서나 1분 1초를 아껴 이 뒷고?
 특히 머리 깎고 스님 된 사람은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절로 와서 중이 되어 일생을 머리 깎고 중노릇하는데,
 잘난 척하고 유식한 체해서 뭐 하겠어요?
 어쨌든지 바보가 되어 한생각 한생각 철저히 단속하여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 병신년 4월 15일 하안거 결제일 송담 스님 법문 중에서 -



고귀한 진리, 괴로움에 대한 고찰

– 두 종류의 고통에 대하여 –

혜운 / 운문사 제47회 졸업생

고귀한 진리, 사성제四聖諦(Catusacca)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며 공부하고 실천하여 얻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도 행복이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는 방법만 알면 그뿐인데 우리는 왜 고통을 알아야 하는 걸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 그 고귀한 진리의 첫 번째는 왜 하필이면 괴로움일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고통을 더욱더 고통으로 몰아가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을 끝내거나 없애주는 고통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고통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고통이고, 어떤 것이 고통을 종식하는 고통일까?

우리를 지금보다 더 괴롭게 하는 고통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것 등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행복으로 안다. 길가의 쓰레기를 줍고 누군가를 위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법당의 좌복을 깔고 화장실을 정리하고 밥을 일구고 땀 흘리며 수고하면 잠깐은 보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손해 본다고 여기며 화를 내고 서운해하며 괴로워한다. 일반인들은 속상하면 술을 마시고 게임에 빠지는 등 폐락을 찾는다. 그것이 고통을 잊는 방법이라고 여기며 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즐겁지 않음을 멀리하고자 한다.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 괴롭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싫어하고 ‘네 텃’이라 여기며 원망하는 것들은 우리를 또 다른 고통으로 이끈다. 사유思惟나 인내, 양보나 배려를 즐겁지 않은 일, 지치고 힘든 일 또는 지는 것, 즉 폐배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은 고통을 더 고통이게 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고통을 멈추게 하는, 고통을 없애주는 고통은 무엇일까? 그것은 참선이나 108배, 사경이나 독경 등과 같이 수행하는 것

일 수도 있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선행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면 나를 더욱 성장시키니까 그렇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경험, 즉 즐거움이나 통증, 기쁨, 슬픔, 화냄 등의 변화를 느끼고 명확히 아는 데 있다. 고통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는 알아차림은 번뇌를 소멸하여 내적으로 두려움을 없애고 평화로움으로 인도한다.

고통이 없으면 지혜는 성숙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잘 자고 잘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려고만 한다면 고통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苦聖諦(Dukkhasaccam)

태어남(生)이 괴로움이며 늙음(老)이 괴로움이다.

병듦(病)이 괴로움이며 죽음(死)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괴로움, 고통, 고뇌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이 괴로움이며, 좋아하는 것과의 헤어짐이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괴로움이며,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사람들이 쫓는 일반적인 행복은 고통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아는 행복은 피악하기 힘든 미세한 형태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보기란 쉽지 않다. 이런 행복을 뒤쫓고 집착하는 것은 고통에 집착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고통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복이라 여기며 그것을 잡은 순간 그 본질적인 고통을 내던지지 못한다. 그래서 봇다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이란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셨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에는 본질적인 해로움이 있음을 이해하게 해주셨다. 그러한 고통과 행복이 결국 같은 것임을 일깨워 주셨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조심하라.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에 넋을 잃지 마라. 고통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거기에 빠져 자신을 잊지 마라. 그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라.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변화를 느끼고 이해함으로써 지혜를 갖게 된다. 누구나 고통을 느끼면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더불어 고통이란 것을 깊이 고찰하기도 한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지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혜 없이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며,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 지혜를 계발하고 수행을 통하여 단련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번뇌는 점점 더 가벼워질 것이고, 우리의 고통은 점점 더 희미해져서 사라지고 마침내는 끊어질 것이다. 행복과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행복과 고통의 같은 모습, 다른 이름을 잘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봇다께서는 이 세상 밖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안(內)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을.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진리이다. 고통을 끊어내는 고통을 감내하라.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바른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불교와 애니메이션 의 만남

능가 / 사집과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애니메이션이란

멀티미디어시대 포교의 뉴 패러다임
애니메이션

III. 불교 애니메이션 활성화 방안

1. 미래불교를 위한 밑거름 “인재 양성”
2. 불교 애니메이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
 - 1) 불교 소재의 발견
 - 2) 불교 캐릭터 탄생과 실사

IV. 나가는 말

V.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2014년 겨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이 큰 인기를 얻으며 신드롬이라 할 만큼 성공의 돌풍이 불었다. 전세계 누적 흥행 수입 10억 7240만달러(한화 1조 1429억 6392만원)를 기록하며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1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겨울왕국’과 관련한 캐릭터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며 품귀 현상까지 빚고 ‘Let it go’라는 영화음악 OST는 국내는 물론 빌보드차트까지 석권하며 영화와 관련된 음반, 책, 게임, 관광 등 문화 콘텐츠 시장 전반으로 확산¹⁾되어 경제적, 상업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겨울왕국’의 신드롬을 보면 ‘이것이 우리 불교와 관련한 애니메이션이었더라면’ 이란 작은 바람이 관심으로 이어져 본고를 작성하기까지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특히 애니메이션이란 영화산업과 불교가 만났을 때를 조망하려 한다. 불교가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를 통하여 지친 현대인에게 불법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나아갈 방향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II. 애니메이션이란

animation에서 anima는 라틴어로 ‘생명의 숨결’, ‘살아 있는’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단어이며, 그림일 뿐이었던 캐릭터에 움직임을 부여해서 생명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란 컴퓨터에 원화의 데이터를 기억시켜 놓고 데이터의 일부 변수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1프레임씩 제작하여 동화상을 만드는 애니메이션 분야. 인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만든 연속적인 이미지를 1초에 24~30매의 그림으로 보여 주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수작업으로 하면 모든 이미지를 그려야 하지만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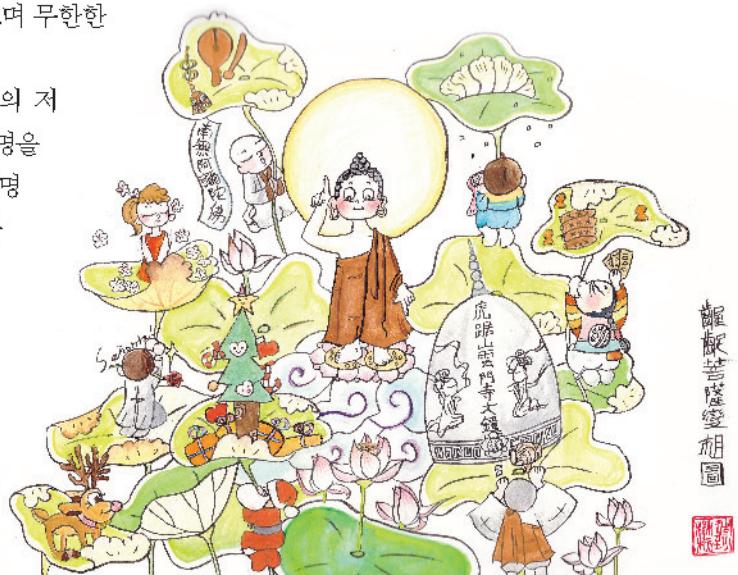
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움직임의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사이의 이미지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리며, 모델의 재질과 움직임 수정 및 변환이 손쉽게 되어 작업 용이성이 커지며 다양한 디지털 영상 효과와 결합할 수 있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처럼 영화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지며, 용도를 다양화시킬 수 있다.²⁾

멀티미디어시대 포교의 뉴 패러다임 애니메이션
실사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현장감이라면 애니메이션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다. 종이에 그려진 만화에서만 가능한 장면과 캐릭터들이 애니메이션이란 제작기법을 통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명력을 얻으며 무한한 창조적 변신이 가능하다.

자타카의 설화에 나오는 ‘생명의 저울’은 비둘기 대신 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보살의 이야기³⁾에서 모든 생명의 무게는 본질적으로 같다는데 불교에서 생명을 보는 관점이다. 그렇기에 모든 무정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의인화하고, 모든 유정무정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동등하며 ‘내가 곧 너’라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담기 위해서는 실체화된 장면만 담을 수 있는 실사영화로는 불가능하다. 경전 속의 화

려하고 섬세하며 재미난 표현들, 가피, 공덕, 화장장엄 세계 속 모든 불보살들 호법선신들, 지옥의 고통 등 실사로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불교스토리엔 가득하다. 그렇기에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는 불교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이다.

최근 10년사이 서울 불자수가 24만명이 감소했으며 우리나라 최대 불교 도시 부산도 10년새 7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또한 0~19세 불자의 경우 이웃 종교에 비해 약 10%p 가량 낮은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⁴⁾ 신앙을 갖게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이전 어릴 때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갖고 있는 종교를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



삽화 : 도원下

1) 스포츠한국: 확 달라진 영화계 시선 <http://bit.ly/1sqj64y> 이정현 기자

2) 컴퓨터 애니메이션도 2D방식과 3D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들을 예로 들면 2D 방식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는 우리나라의 마리아야기 일본의 센과 치이로의 행방불명 등이 있고, 3D방식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미국의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슈렉 등이 있다. 포털사이트 daum 영화백과사전 “애니메이션”

3) 「본생경(자타카)」 중 「비둘기와 시비왕」편

4)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나는 질문에, 26%가 “9세 이전”이라고 답했다. 주1회 이상 종교 의례 참여율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80%, 천주교인은 59%가 ‘일주일에 1번 이상’ 교회나 성당을 가는 반면 불교인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45%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⁵⁾

종합해 보면 9세 이전에 불교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불교 의례, 행사에 참여하는 6%의 신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관심이 없어서 불법을 못 만나고 있는 45%의 사람들 을 부처님의 행복한 가르침으로 초대하면 되는 것이다. 영화관으로 진리의 설법장소를 옮겨주고, 관심이 없는 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가르침을 눈이, 귀가 즐거울 수 있는 풍부한 상상 속 모든 만물로 나투어 그들에게 다가서면 된다. 불교를 외면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불교와 소통하고 감성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III. 불교 애니메이션의 활성화 방안

1. 미래불교를 위한 밑거름 “인재양성”

한국불교의 중심 종단인 조계종의 소속 중고등학교는 21개교이고, 한국기독교학교연맹(KFCS)의 회원 중고등학교가 288개교이고,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소속 중고등학교가 65개교이다.⁶⁾ 또 조계종을 포함한 타종단까지 합친 불교계 대학은 6개교이고, 개신교는 50개, 천주교는 11개 대학⁷⁾이 있다. 타 종

교의 교육기관수를 언급한 것은 본고를 읽는 많은 독자들 중 교육에 원대한 서원을 발하기를 바라는 필자의 마음을 담아본 것이다.

매년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학생들은 어떤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든 잠재적 프로슈머들로,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에 익숙한 만큼 유통 채널이 확보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출현한다면 뉴미디어에 맞는 글로벌화 되어가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어갈 기반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⁸⁾ 하지만 불향이 솔솔 나는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키고자 한다면 불교 관련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인재양성을 전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운문사는 전통강원이다. 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폭이 일반인들과 다른 학인들에게 애니메이션을 교육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강원과 종단에서 제도적 지원이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 해마다 소수의 학인들이 애니메이터로 시나리오 작가로 감독으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인재들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교 애니메이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불교 소재의 발견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의 ‘의주비유衣珠譬喻(옷 속 보석의 비유)’와 같이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남겨주신 팔만사천의 스토리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다른 작품들의 성공에 감탄과 동경만 할 뿐이다.

첫째 스토리 소재는 화엄경이다.

비로자나불의 털구멍마다 온 세계를 담고 각

5)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실태 조사

6) 불교계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현황 (이학주 법사)

7) mcst.go.kr 종교계 운영 사립학교(정규대학) 현황

8) 전자신문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이대로 좋은가?

털구멍마다 펼쳐지는 세계 세계가 모두 진리의 헛살이 비추고, 온갖 자연물들이 의인화되어 하늘과 땅 불과 물, 해와 달 등이 모두 살아나 친구가 되어 노래하고 춤추고 온갖 꽃들과 보석으로 장식된 세계마다의 무수한 감동의 주인공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진리로 숨을 쉰다.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의 털구멍이지만 그 털구멍마다는 각 세계의 생명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누구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스토리를 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법화경. 법화경의 7가지의 비유가 현재 또는 미래 시간의 주인공과 스토리를 만나 가르침을 펼치고, 법화경에 나오는 섬세하고 화려한 표현들,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을 수 있는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고도 남음이 있다.

시대마다 탄생된 양고승전梁高僧傳, 속고승전續高僧傳, 송고승전宋高僧傳, 명고승전明高僧傳,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동국승니록東國僧尼錄, 동사열전東師列傳 등에 나오는 모든 스님들을 기숙사와 급식 영상수업을 하는 현대식시설을 갖춘 승가사관학교 사관생도들로 입학을 시켜 좌충우돌 고승 성장기를 그린다면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불교 캐릭터 탄생과 실사

석가모니 부처님은 핸섬하고 학벌 좋고 인간성마저 좋은 현대시대의 황실가족. 왕자 캐릭터라면 어떨까. 청바지에 흰티를 입고 계신, 백호가 피어싱으로, 나발은 새로운 패션헤어스타일로 새롭게 변신하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천계에 계신 부처님께서 포상휴가로 일반인 체험을 하기 위해 인간계로 여행을 오셔서 중생들만이 하는 갖가지 체험들로 날마다 부처님미소 띄우시는 캐릭터라면 충분히 친근하고 푸근할 것이다.

또 크루즈를 타고 가지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평안과 치유를 선물하며 성장기를 맞이할 선재동자와 함께 하는 것도 재미있

을 것이며. 미스터 빈과 같은 캐릭터로 유통성도 없고 어수룩하고 각종 사고와 실수로 시한폭탄 같은 지언정 생명을 향한 사랑과 존중만은 모든 이들의 무릎을 끓게 하는 순수함의 원천이자 인간사랑, 존중과 겸손의 상징 상불경 보살의 캐릭터는 따스함 또한 감동일 것이다.



劉曉

아난다는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날 태어나 이름 자체를 ‘기쁨’이라고 지었듯이 오빠부대를 몰고 다니며 기쁨을 선사하는 이 시대 최고 꽃미남 아이돌 캐릭터로, 사천왕은 악의와 탐진치란 위험에서 마음을 지켜주는 마인드 경호원들로 불제자들이 악한마음이 들 때나 탐진치가 발동하려 하면 비파소리로 경보를 울려주고, 용이 불을 뿐으며 불제자들을 엄호하는 든든한 캐릭터로, 염라대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나 사회적 부와 권력 명예가 없어 받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힘없는 중생들 편에 선 판사로, 앙굴리마리는 불의와 악 앞에서는 살인마로 변신하는 헬크와 같으며 선한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순수한 요정으로 변신하는 캐릭터로, 제바달다는 배신의 간판 캐릭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려 할 때 자유자재 원하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어떻게든

태어날 수 있다.

필자가 가장 큰 마음으로 탄생시키고 싶은 캐릭터는 ‘악착보살’이다. 비로전 천장을 올려다 볼 때마다 뒷모습만으로도 마음 가득 웃음이 번지는 중독성 있는 기쁨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이미 악착보살은 필자의 사집반에서도 인기 있는 캐릭터이다. 악착보살이 캐릭터로 태어나 울력을 하고, 짐장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세계 여행을 악착같이 한다. 왜? 꿈의 세계 즉 서방정토로 기는 단 하나의 티켓을 얻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캐릭터다.

IV. 나가는 말

온 세상이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인드라망을 통하여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컨텐츠 하나 하나가 인드라망의 보배구슬이며 하나의 보배구슬이 움직이면 창의적으로 개발된 모든 컨텐츠들은 서로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온 법계가 부처님 가르침 세계로의 희망찬 초대와 응대로 가득 할 것이다. 불교 애니메이션에 성공은, 영화내용에 토대가 된 철학적 가르침의 경전, 영화 OST, 캐릭터들이 활약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탄생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10년새 감소된 불자수에서 보듯, 사람들이 불교란 종교에서 외면하여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행복하게 사는 법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더 현실적인 새로운 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전법과 포교를 펼쳐야 한다. 불법을 담은 양질의 영상매체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첨단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포교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행복한 이들로 가득한 불국토는 더욱더 빨리 완성될 것이다. 불교 애니메이션 포교 역시 지금 필요한 건 나날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아줄 수 있는 자비로운 시선과 무한한 관심이다. 불교가 가진 깊은 진리와 재미있고 감동 있

는 영상과의 감성 콜라보로 온 누리에 불교 애니메이션 포교의 돌풍을 일으키자. 21C 애니메이션을 통한 전법선언에 모두 동참해 보자.

V. 참고문헌

- 김성철 “화엄사상에 대한 현대적 이해” 논문
동국대학교 도서관
- 김양웅 “불교문화 컨텐츠 구축 현황 및 방향”
논문 동국대학교 도서관
- 이재수 “문화다양성 시대 불교 문화콘텐츠의
역할” 논문 동국대학교 도서관
- 조현미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종교적 상상
력에 대한 연구” 논문 동국대학교 도
서관
- 정광철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황 및 발전방향”
리포트 포털싸이트 daum
- 온광 스님 “전통사찰문화의 현대적 가치” 논문
운문사 승가대학 홈페이지 삼장원
자료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通하다~!!

동우 / 대교파, 교화부장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속시원하게 웃고 잘 노는 법회를 하는 곳이 있다. 1988년 “제주를 그리스도에게”라는 건물 위에 걸린 크고 긴 현수막을 본 후, 울렁이는 감정을 주체 못해 제주에 왔다는 인성 스님. ‘나는 정말 어린이를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면서 35년째 제주도에서 굳건하고도 유일하게 어린이 법회를 하고 계시는 인성 스님과 동연同緣의 어린이들이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도량. 그곳은 제주도 우리절이다.

일요일 아침부터 해심당解心堂에는 우리절 동연 어린이 일요 법회의 준비로 분주하다. 주지스님을 위시로 하는 사전 회의 시간, 매주 열리는 법회인데도 그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면서도 자유롭다. 9시가 조금 넘자 법당은 이미 40명이 훌쩍 넘는 아이들로 가득하다. 아이들은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문 옆에 가지런히 달린 자기의 이름표를 하나씩 가슴에 달고 하나같이 봉투를 챙기거나 찾는다.

예쁘게 가부좌 하고 자리에 앉으니 주지스님이자 법사스님인 인성 스님이 들어오시고, 회장 부회장 어린이의 집전 하에 법회가 진행된다. 삼귀의, 반야심경이 끝나자 ‘부처님께 바칩니다’라는 찬불가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줄지어 나온다. 이제 보니 처음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바쁘게 찾던 봉투는 보시

금을 넣기 위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준비한 봉투를 상단의 불기 위에 곱게 합장하며 올리고 자리로 돌아간다. 이어서 주지스님의 법문인 듯 법문 아닌 법문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모두 기대만 반인 표정으로 스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초집중 상태인 아이들에게 던진 첫 말씀은….

‘어? 현문이 왔어? 이번 주는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니까(웃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인성 스님보다 아주 조금 더 젊은 스님들이 우리곁에 왔어. 오늘은 특별히 불자 테스트와 생일법회가 함께 있는 날이니까 평소보다 좀더 잘해보자~! 하지만 오늘도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그냥 방황하고 싶다! 하는 친구, 어 그래~옳지. 그래 너희들은 동민 선생님을 따라서 복도에서 놀면 돼~(웃음). 그리고 오늘 불교성전 가꿔온 사람? 야~ 많네! 너희들은 오늘 여기 인성 스님이 아닌 육지에서 온 스님들한테 편지를 받을 건데, 너희들 오늘 완전 땡 잡았어~ 이 스님들이 앞으로 엄청 큰 스님이 될 건데, 그러면 너희는 엄청 큰스님 편지를 미리 받아 두는 거니까(웃음)’

‘자~ 시작! 움직이세요~!!’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불제자 카드를 챙겨서 친불가, 예불문 외는 곳, 편지를 받는 곳, 법당 습의 하는 곳, 입정하는 곳 등 여러 장소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누비며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불자 테스트는 그야말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시험법회로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가장 통과하기 힘든 곳은 입정하는 곳. 아이들은 참선 자세로 꽂꽂이 앉아 1분을 견뎌야 하는데 그 때 인성 스님은 마구나기 되어서 참선하는 아이들을 웃게 만든다. 그런데 아이들은 스님이 옆에 다가오는 것만 느껴져도 미리 웃음을 빵 터트려서 ‘땡~!!!’ 통과를 못할 때가 많다. 이날 7번이나 도전했는데도 웃음을 못 참아 통과를 못한 지우는 결국 머리를 긁적거리며 고개를 떨구고 인생을 포기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불제자 카드는 삼귀의를 비롯한 친불가, 예불문, 발원문, 입정, 삼배 등의 2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아이들은 테스트를 통해 도장을 받아 24개의 빈칸을 채워 나가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장을 받으려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이 도장을 받아 24칸을 다 채우면, 그 아이는 동연 어린이법회를 졸업할 때 스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직접 퀘어 주신 천염(천개짜리 염주)과 열명 넘는 선생님들이 각자 써주시는 편지를 받게 된다. 천염을 받는 일은 쉽지 않아서 마지막 도장 한 개를 못 받아서 천염을 받지 못했던 도명이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어서 부모님을 곤란하게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어진 생일법회

50명 정도의 아이들 앞에 작은 뾰로로 케이크 하나가 놓여졌다. 스님께서 작은 폭죽 두 개를 장엄하게 손에 들고 하나는 지난 초파일 때 프로 수준으로 엄청나게 사물놀이를 잘해준 법여에게 주었고, 다른 한 개의 폭죽은 오늘 생일자가 마음에 드는 육지에서 온 스님들 중 한 명에게 주었다. 이어서 다 함께 기쁜 노래로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작은 폭죽은 화려하게 생일자 아이들 머리 위로 멋지게 내려앉았다. 여기까지는 일반 생일 법회와 다름이 없다.

스님께서는 ‘자 우리 모두 오늘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위해 호궤합장하고 기도하자~! 진심으로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 육지에서 온 스님들이 너희들 중 한 명을 뽑아 케이크 위에 있는 제일 큰 뾰로로 쿠코렛을 줄 거니까 다들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 잠시 후 스님의 경쇠 소리와 함께 기도가 시작되었고, 짧지 않은 시간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분위기와 흐트러짐 없는 아이들의 진지함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님들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마침~ 결정의 순간이 왔다. ‘자~ 오늘 정말



생일 친구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한 친구는 누구죠? ‘다들 열심히 했지만..두둥~ 오늘의 뽀로로 초코렛의 주인공은 산처럼 움직하게 호궤합장을 하고 기도를 잘해준 지안이~!’ “와~~(짝짝짝)” 뽀로로 초코렛이 그랑프리 대상이라도 되는 듯 지안이는 당당하게 걸어나와 초코렛을 받아갔다.

그 이외에도 담장 초코렛은 입정 테스트에서 7번이나 떨어졌지만 끝까지 웃음을 참으며 최선을 다한 지우에게, 뽀로로 글자 초코렛은 또 다른 아이에게 상장처럼 주어졌기에 이 날 생일을 맞은 주인공은 정작 케이크를 한 입씩밖에 못 먹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는 뽑히지 않았다고, 난 케이크를 못 먹었다고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아이는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과연 얼마나 될까? 매주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일요 법회를 온다면 그 사찰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그럼 우리결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은 걸, 가고 싶은 법회가 됐을까?

먼저 모든 법회는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내도록 한다. 스님은 어린이 법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금이라고 한다. 많아야 천원이고 내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 아이들이 낸 보시금은 오롯이 아이들 간식비나 전부 법회 운영을 위해 쓰여진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베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법회를 유지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처럼 물질이 흔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이들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 또한 보시금을 받으면 자모회나 후원회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순수하게 아이들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다.

또한 처음 우리절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섭섭하고 또 이상하지만(?) 우선 빈손으로 다닌다. 불교 성전은 돈을 내고 사야 하며, 다포, 염주, 경전 가방 등은 한 해 한 해 마련된 것이지, 한번에 다 생기지 않는다. 법회에 오래 나온 만큼, 아이 스스로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한 만큼 모든 용품들이 갖추어진다. 그 용품들은 당연히 값비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거나 어떤 관문을 통과해 받은 것이다. 그래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도 아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다.

다음으로 법사스님은 소신 있게! 자신의 기준과 틀, 이념이 있어야 하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 우리절의 법회는 그 경력만큼이나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이 법회를 진행하는 10명 넘는 선생님들의 99%가 동연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 출신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스펙이 짱짱해도 능력만으로 동연 선생님의 자격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딱 한 명 예외인 분은 현재 주임 선생님 소임을 맡고 있는 이완국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제주 대한민국 스승상’을 탈 정도로 어린이 교육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분이며, 한편으로 연수회나 대기업에서는 소위 인기 있는 스타 강사이다. 하지만 동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한 지 몇 해를 기다려 힘들게 대중의 허락을 받고 어린이 법회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각자 본업이 있는 열 명 넘는 선생님들의 급여는 당연히 없다. 법회뿐만 아니라 매년 캠프 준비를 위해 6개월 씩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선생님들! 한 캠프가 끝나면 바로 다음 캠프를 준비는 방식이 힘들고 어려울 법도 한데 아이들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니 과연 보현보살 행원의 마음들이 여기에 다 모였다.

마지막으로 온몸과 온 마음으로 법회를 진행하였는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앞에서 열심히 잘 따라하는 아이들이나 스님과 선생님들 말을 잘 듣는 아이들에게 먼저 눈이 간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눈에 띄기 마련이다. 누구나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고, 예쁘고 단정하게 맨 앞자리에 앉아 생글생글 웃어주는 아이가 좋다. 그런데 인성 스님의 시선은 항상 저 맨 끝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아이에게 있다. 쓰레기통 옆에서 ‘여긴 어디? 난 누구?’라는 표정으로 명하니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우리절에 보내진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와 있기에 스님도 절도 같은 또래 친구들도 관심이 없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스스로 발심해서 한줄 앞에 와 앉으면 그때 스님은 생각한다. ‘오늘 법회 잘했네~예스!’ 저 끝에 있던 아이가 한 줄씩 앞으로 다가와 앉을 때 스님과 눈빛을 마주치려고 할 때 그때 스님은 그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살핀다. 바로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반면 몇 주째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스님은 그날 온몸과 온 마음으로 법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 찬다고 한다.

‘애들이 뭘 알아~ 그냥 이 정도 하면 꽤’라는 생각은 어른들만의 생각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어른들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 포교에 달려 있고, 어린이 불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며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 그 누가 아이들을 진정한 불성을 가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함께 온몸과 온 마음으로 놀아 줄 준비가 되었는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구든 우리절 이야기를 접하고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뛴다면 설사 지금 그가 맨발로 불교의 불모지에 있더라도 이미 어린이 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여름
불교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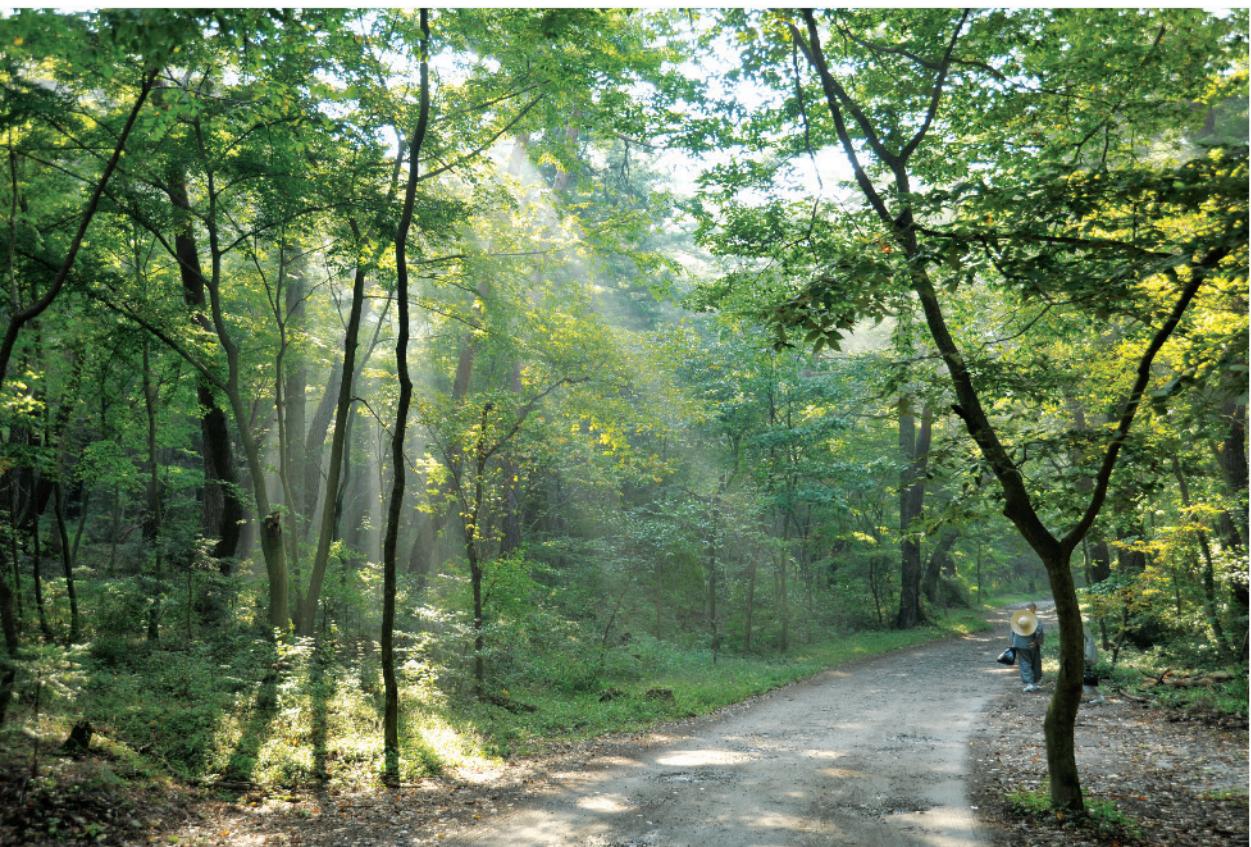


완전한 치유로 이끄는 길(道), 인과 법칙에 대한 성찰

임동규 / 농부의사

한때 저도 현대의학이 유일한 치유의 길이라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이고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니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자연치유 그리고 현미채식을 주로 처방하고 교육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의학적 처방만으로는 현대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길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바꾼 지가 벌써 15년쯤 되는군요. 그 당시 40대 중반이었는데, 보통 중년들처럼 뚱뚱하고 허리둘레 34인치 정도로 배불뚝이였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치도 높았고 지방간에 대장용종도 떼어 냈고 자고 나도 피로가 안 풀리는 만성피로에, 등과 엉덩이에 온통 여드름투성이, 여름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은 비 오듯 해서 움직이길 싫어할 정도로 몸 상태는 좋지 않았었죠. 그러면 어느 날 아내가 전래 준 <음식 혁명 ; 배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회사 상속을 거부한 존 라빈스 저>이라는 책을 접하고 너무나 충격



적이어서 날밤을 새며 읽고 나서 바로 냉장고와 집 안을 뒤져 육식(고기, 우유, 생선, 달걀 및 그 가공품)을 집밖으로 추방하고 현미 채식으로 바꾸었고 또 계으른 생활습관을 청산하고 걷기 등 약간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체중이 10킬로, 3달 만에 17킬로나 빠지더군요. 특별히 밥을 적게 먹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쉽게 체중이 주니 오히려 암이 아닌가 걱정까지 되어 검사까지 해보았지요. 그런데 모든 검사 수치가 완벽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잠시나마 걱정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이후 제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그 후 질병과 치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십 수 년 이상 배운 의학지식을 내려놓고 자연치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성찰하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과학과 서양의학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했지만, 서양 의학적 치료의 혜택이 광범위해지고 접근이 쉬어질수록 오히려 안타깝게도 국민의 건강은 나빠지고 중증 질환으로 고생하다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왜일까요? 서양 약은 화학 독이기 때문이라는 동양 의학자나 자연요법가들의 주장이 옳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우 지나친 비약입니다.

우주에는 인과법칙이라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고.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기에 일어나는 필연이란 뜻이지요. 성경에도 뿐만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팔 난다는 말이 있지요.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을 피하고 싶다면, 다시 말해 건강을 원한다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은 물론 대부분의 치료법은 질병의 원인 교정보다는 당장의 증상을 해결하는 대중요법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두통이 있으면 해열제와 두통약을 주는 것이지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 강하제를,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강하제를, 고지혈증에는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암 환자의 암을 도려내거나 지지거나 태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한의학도 자연요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침이나 뜸, 그밖에 어떤 병에는 무슨 약초나 어떤 치료법이 좋다고 치료 방법만 권하기만 하지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크게 염두에 두지 않지요. 바로 이런 인과 법칙에 대한 무지가 지금 우리 사회의 환자를 줄이지 못하고 암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근본 이유입니다.

질병의 증상들 그리고 암 뎅어리는 그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따라서 증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신비의 치료를 받았더라도 질병의 원인이 그대로 있는 한 다시 재발하거나 아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아프면 그 질병 또는 그 증상을 해결하는 데 집착하여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약과 약초와 치료법을 찾기 바랍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국력을 낭비하듯이, 온 국민이 신비의 약초를 찾아 헤매고 의료문턱 낮추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 질병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성찰 없는 치료의 결과는 뻔합니다. 한 예로 유방암 초기로 수술 등 치료를 받은 뒤 결과가 매우 좋다며 다 나았으니 잘 살라는 의사의 축하까지 받았지만 수년도 안 돼 전신에 암이 퍼져 더 이상 손쓸 틈도 없이 짚은 나이에 이 세상을 하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그 딸의 아버지(대학 교수)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중 하나인 식생활 교육을 열성적으로 시작한 사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질병에 대한 걱정은 크게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 질병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들 고령 사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짚은이들에게서 암 등 성인병이 늘어

난 이유가 노인이라는 말인가요? 평균 수명이 월등히 높고 100세 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장수촌 마을엔 만성질환자가 많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정말 고령이 주원인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는 우리는 노력해봐야 다 헛짓이라는 뜻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유전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실제 유전과 관련된 질환은 매우 적다고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환자의 폭발적 증가는 채 100년도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유전자가 그렇게 빨리 변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또 다른 중요 요인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지목합니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 간암은 간 염바이러스, 위암은 헬리코박터, 자궁암은 자궁인유두종바이러스, 심지어 당뇨병도 미생물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균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우리 몸에 침투하고 증식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그런 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 몸이 바뀌면 그런 균들이 침범하고 증식합니다. 다시 말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근본적 원인이 있기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음식 찌꺼기가 있고 서식 온도가 맞을 때 바퀴벌레가 사는 것처럼요. 즉 균의 증식은 어떤 조건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균이 질병의 진짜 중요한 원인이라면 균이 가장 많이 가장 다양하게 존재하는 곳은 병원이기에,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특히 환자들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만한 사람이 암 등 중증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만이나 다른 질병의 원인은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암 등 중증 질환의 원인을 지닌 사람 중에는 비만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비만 그 자체가 다른 질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지면상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 밖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와 혈의 허약이나 오장육부의 허약함, 요즘 새롭게 각광받는 이론인 활성산소나 염증의 증가, 자연요법가들이 말하는 저체온과 저산소 등 이런 모든 현상들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들이거나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평소 알던 원인들은 실제 원인이 아니며, 이런 증상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춘 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기와 혈을 회복시키기 위해 침과 뜸을 놓아도, 체온을 높이는 온열 치료를 한다 해도 원인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그런 치료로는 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아픈 사람이 늘고 암 등 질병으로 죽는 이유는 의사도, 국민도, 자연요법가도 모두 근본적 치유의 원리(건강과 질병의 인과 법칙)에 대한 무지 때문이며, 사람들이 그 무지만을 믿고 따른 결과, 즉 우리들이 무지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대다수 사람들은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등 만성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이나 사고로 이 세상을 둉쳐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급격히 질병이 늘어난 우리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 안팎환경이 변했습니다. 청정했던 우리 주변 환경이 공해, 각종 화학물질 등으로 뒤덮인 미세먼지(1급 발암물질)로 대기가 오염되었고(WHO “해마다 300만 명 숨진다”), 집안 역시 각종 화학 건축자재, 화학 세제, 방향제, 전자파, 플라스틱 제품 등에서 내뿜는 독의 범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실

내 생활이 급격히 늘면서 햇볕이나 숲 등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한낮에도 실내 형광등에서 지내고 대신 신체 활동량이 크게 줄고 과로와 늦게 잠자리에 드는 등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생체 리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셋째는 스트레스의 증가입니다. 불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질병의 양상도 서구화 됩니다. 육류 섭취 비율이 높은 서양인에 많았던 비만과 당뇨병과 심장병, 그리고 암 중에서도 서양인에서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 유방암, 만족, 불평 등 부정적 기운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화는 우유 계란 고기 생선 등 동물성 재료의 급격한 증가와 정제식품(빵과 떡의 주원료인 흰설탕, 흰밀, 흰쌀 등)의 범람으로 섬유질과 항산화물질 섭취의 급감입니다. 이처럼 한국인과 동양인도 점점 더 서구에 많은 전립선암 등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고도로 산업문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러한 환자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생각하는 방식과 태도, 즉 병을 키우는 삶으로 급격히 바뀐 것이 원인이며, 그 인과에 따라 지금 병든 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을 바꾸고(병을 키워왔던 지난 삶에 대해 성찰하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끊고 항산화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 채식으로 바꾼다면, 적당히 햇볕을 쬐고 숲을 즐기고 걷는 등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며 삶을 다소 여유롭게 받아들여 정신적 긴장을 줄여준다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변화할 것이고,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당연하지만 놀라운 경험은 원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고, 병원에서 포기했던 말기 암환자 중에도 이처럼 생활을 바꾸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흔히 아프면 병원, 한의원 아니면 자연요법이라도 해야 병이 낫는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치료들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천하의 명의와 신비의 약을 먹는 중이라도 어제의 질병의 원인 - 과로, 스트레스, 기름진 육식, 술과 담배 -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병이 나을 수가 없지요. 병원에 입원하면 낫는 이유는 병을 키우는 삶에서 잠시나마 떠나 몸과 마음을 편히 쉬었기 때문입니다.

외과의사에서 자연치유사로 변신한 뒤 많은 난치성 질병을 완전한 치유로 이끌어준 얼력 월리암스는 자신에게 찾아 온 환자들에게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to get better ; all you need is to stop doing what’s wrong and making yourself sick. 당신은 더 나아지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을 아프게 하고 나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무언가 덧붙이는 게 아니라 무지의 질주를 멈추고 건강한 삶으로 되돌아 갈 때 치유는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이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 외 치료법은 보조에 불과합니다. 인과 법칙에 대한 무지, 그것이 질병의 근본 원인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인과 법칙에 대한 깨달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합장합니다. ☺

현미채식 하는 농부의사 임동규
자연치유 교육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체스평화연대 자문위원, 베지닥터 이사
저서 : 「내몸이 최고의 의사다」(에디터)



下心

도림 / 사미니파

사춘기 시절 어느 날 문득 “나는 혼자다. 항상 곁에 계시는 부모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알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정신적인 방황과 함께 헛헛함이 제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이 헛헛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이 헛헛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방황을 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허무함은 채워질 수 없었고 히말라야의 4,000m의 고자를 밟아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헛헛함을 걸어 다니면서 달래던 버릇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스페인 카미노를 걸으면서 나를 정리한 후에 출가하자 생각했습니다. 다닌던 직장을 그만두고는 급하게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같은 길을 비슷한 속도로 가다 보니 길동무가 생기고, 나를 들여다보며 정리하기보다는 친목을 다지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의도와는 다른 여행이 되었고, 아쉬워서 네팔과 인도로 넘어가서 부처님께서 머무셨던 곳을 다니면서 잠깐 동안 명상을 경험하고, 인도 쇠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는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동안 거의 한 철을 나기 위해 오신 스님들과 함께 머물면서 기도를 받았고 108배 이상의 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저에게 제 인생의 기도라는 것을 처음 시도해 보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에 대해 오고가는 대화를 들으면서 그제야 신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정사에서 한 철을 났던 인연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의 은사 스님을 만나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출가해서 제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하심下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익혔던 제 나름의 가치관과 습관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 가야 했습니다. 새로 태어나자는 각오로 출가한 저는, 시시비비 분별망상에 끄달리면서 제 스스로 무수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참 많이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저와 함께 살고 있던 저의 은사 스님과 사형을 참 많이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내려놓자’ 저를 다독이며 저를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 억눌려 참으면 하심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과 자만심은 그대로 두고 무조건 침는다고 하심이 되겠습니까? 침는 것은 한계가 있어 폭발했고, 폭발하는 것

도 참 잊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런 저를 불잡고 걱정도 하시고, 기도도 시키시고, 설득도 시키시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심이 되고, 하심해야 번뇌 망상에 가득 찬 그 마음이 비워진다. 비우고 나야 진정한 공부가 비로소 시작되며 그 비워짐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우리 스님의 가르침에도 저는 하심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 변명이 먼저 나오고 나름대로 주변을 배려 한다며 했던 행동은, 상대가 주가 아닌 내가 주주가 되어 판단한 배려였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음에도 ‘나는 이렇게 했다’는 상을 세우면서 제 어리석은 모습을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곁에서 지켜보시고, 저의 은사 스님은 많이 걱정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발심출가를 했으면 지성 일념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아만을 버리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킵니다. 그 망상에 껴들려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또한 힘들게 함에 대해 걱정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심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혜인 스님의 법문에 하심이란, “나를 남 아래에 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밑에 있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이 무너지고 하심만 잘 되면 모든 존재가 차츰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저희 치문반이 봄철에 치문에서 배웠던 <위산대원선사 경책 漢山大圓禪師 警策> 중에서

소한所恨은 동생상계同生像季하야 거성시요去聖時遙라

불법佛法은 생소生疎하고 인다해태人多懈怠할새

약신관견略伸管見하야 이효후래以曉後來하노니

약불견궁若不觸矜이면 성난운환誠難輪道이니라.

한스러운 비는, 상법이 끝난 시기에 함께 태어나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어,

불법은 낯설고 사람들이 모두 게으르구나.

간략하게 좁은 소견을 멀쳐 뒤에 오는 이들을 깨우치려 하니

만일 자만심을 버리지 않으면 윤회를 벗어나기 참으로 어려우리라.

라는 대목이 가슴에 와 닿아서 되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 모습이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부끄럽고 창피했으며 저의 그 꼴을 보아 넘겨주시고 일깨워 주려고 무단히 애쓰셨던 은사 스님과 옆에서 저를 다 받아준 사형에게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이곳 강원에 와서 은사스님이 떠오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곤 했습니다. 이제 출발점에 갓 시작해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 조금씩 제 모습이 보일 때는 수행자의 이 모습,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지금, 여기서 하는 보살행

현담 / 대교과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라.”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사회복지부분에서 직접 실천하고, 후학양성에도 헌신하고 계신 보각 스님을 찾아뵈었다.

“사회복지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창하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하면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있으면 몸으로 하면 되고, 시간이 없으면 후원금을 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방법이죠.” 복지활동도 곧 수행이며 철저한 수행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불교사회복지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스님은, “사회복지는 보살행의 구체적인 학문이자 실천방법이다.”라고 명료하게 정의하셨다.

사회복지는 나의 운명이고 어머니의 유산이다.

스님과 사회복지와의 만남을 들여다보면 ‘필연’과 ‘운명’이란 말이 교차한다. 1977년 상지대 2학년으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던 보각 스님은 돈이 없어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되자 휴학을 택했고, 2년간 학비를 벌어서 다시 경영학과에 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제적된 상태였다.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만 휴학이 가능하다는 학칙을 몰랐던 것. 재입학은 결원



이 있는 학과에만 가능하다는 학칙에 운명적으로 결원이 생긴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심성의 씨앗은 품고 있었다. “집에 찾아오는 거지에게도 제대로 상을 차려 내시던 어머니의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시험 보러 어머니 와 첫차를 타고 가는데 거지를 보자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내복을 벗어주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많은 버스 안에서 입고 있던 내복을, 그것도 그날 아침 어머니께서 주신 빨간 내복을 그 거지에게 벗어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이 일이 훗날 스님이 사회복지에 눈뜨게 된 모티브가 되었다.

남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적소에 두어야 하느니라

[아합경]

스님은 봉사를 강조하는 사회복지 학자이고 활동가이면서 정신은 철저히 무욕無慾이다. 1995년에 10년 동안 급여, 강의료, 법문 등으로 모은 3억5000만원 전액을 사회 곳곳에 환원하셨으며 지금도 자제공덕회의 후원자이시다.

“권선, 남한테 착한 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30년을 살아서 이제는 얹어먹는 법을 알았어요.



“이것은 나 개인을 위해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차한 일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은 없어요. 옛날 승가는 탁발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는 하심을 수행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말인즉,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난 늘 스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해라’라고 하지 말고 ‘하자’라고 해라. 지도자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권유해야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 아~ 스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허리와 다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파도 이를 악물고 절을 해보던가 아니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던가….”

수행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일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님들이 좌우명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해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경책하며 수행할 수 있는 계율과 같은 좌우명은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래에 아함경을 읽다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나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산다.’ 날마다 밥은 먹고 살면서 왜 마음에 양식은 주지 않는가? 수행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로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때마다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스님의 손에는 쉼 없이 염주가 돌아가고 있다. 잠시라도 짬이 나면 사경을 하신다면, 갖고 다니시는 사경집을 꺼내 보여주셨다. 심지어 인도에 가실 때도,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델리에 도착할 때까지 장장 10시간을 쉬지 않고 사경하시는 모습에, 사람들이 경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연출이라도 좋으니 스님들이 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서글프지만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팔은 고장났지만, 사경하다 아픈 것이니, 고통이 괴감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어려움들이 나를 행복 받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승가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아쉽다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비구니스님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성전문진료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저희 학교 4학년 학인 중에 한 스님이 여성암으로 죽었어요. 젊은 스님들이 이런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일찍 진료 받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을 수치심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악화돼서 죽으면 좋단과 본인에게 얼마나 손해인가요?

처음 비구니회관을 지을 때, 그 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에 회관 내에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진료 공간을 만들어 보라고 권장했었고, 얼마 전에 승려복지회 5주년 대담에 참석했을 때도, 종단차원에서 여성진료소를 만들자고 건의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네요. ‘우리가 나중에 입원 치료비를 주며 치료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이죠. 이런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스님들이 고통받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비구니스님들~ 듣듣하죠? 이렇게 생각해 주기만 해도…”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스님의 고민과 아이디어는 끝이 없이 있으신 듯하다.

“승려복지문제는 스님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정작 그 혜택

을 받을 스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재가신도들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죠? 짊고 건강한 스님들은 복지의 후원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또 그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종단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복지후원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어요.”

불교의 정신적인 고향에 불법의 씨앗을 심다

지난 4월 5일 인도 쉬라바스티에 초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한국 사찰 천축선원 경내에 지상 2층짜리 건물 2개 동에는 각 2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12칸과 교무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학교가 세워졌다. 게다가 학생 1명당 1대씩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20대와 대형스크린을 갖춘 시청각실도 갖췄다.

“법화경에 은혜를 입고도 갚을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데, 나는 부처님 덕에 공부도 하고 잘 지내니 은혜를 갚아야겠죠!” 몇 해 전 쉬라바스티를 방문했다가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 없어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을 보셨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시면서 가장 많은 경전을 설한 쉬라바스티 기원정사, 불교 유적지는 있지만 불교가 없는 이곳에서 스님은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고 가난과 어둠에 갇힌 아이들을 봤다. 보자 스님은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법을 설했을 당시 이 아이들이 벽돌을 나르고 공양을 올리곤 했을 사람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부처님께 받은 은혜를 그 후손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었다”고 하셨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건립도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부처님 당시 아시타선인처럼 저 애들이 인재로 크는 걸 못 볼까봐 걱정하셨다.

기금 전액을 부담한 스님은 2013년 처음 공사에 들어갔을 당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학교 이름을 ‘보광’으로 할 것, 불교와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정규과목으로 할 것 등이다. ‘보광’은 스님의 법명과 속가 어머니 법명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지었다. 보자 스님은 “불법과 처음 인연을 맺게 해준 어머니의 법명에서 한 글자를 따왔다”며 “내가 어머니를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법을 통해 밝은 세상을 만난 것처럼 아이들도 보광학교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 소중한 인연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밀씀하셨다. 건립 기금은 30년 넘는 교직 생활을 하며 틈틈이 마련했다. 학교를 짓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원자들이 조금씩 보시금을 모아주기도 했다고 한다. 부술부슬 비를 맞으며 돌아오는 길, 평생 중노릇하는 데 자산이 될 만한 소중한 격언들로 뿌듯하고 든든했다. ☺



보자 스님께서는 해남 대흥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다. 1974년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고 1984년부터 중앙승가대학에서 불교사회복지학을 강의하기 시작해 33년째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며 중앙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셨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 복지법인 자제공덕회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며 인도 보광학교 건립자이자 후원자시다. 불이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셨다.

불법 속에서의 변화

도현上 / 사미니파

시나브로 녹음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 추운 겨울 목도리와 텔모자로 무장하고 입방시험을 치기 위해 운문사를 방문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러갔나 봅니다.

요즘 제가 지내고 있는 운문사의 산과 주변의 초목들은 저마다의 푸르름을 뽐내며 여기저기서 화사한 불과는 또 다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처음엔 그 싱그러움과 생명의 신선함에 눈이 마냥 즐겁다가 그 변화과정을 생각하니 자연과 인간 등 우주만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하여 항상한 것이 없어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주만물 중에 속하는 저라는 사람 또한 늘 변화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제가 있고, 또한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변화할 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랜 겹을 윤회하며 쌓은 선업과 악업을 인연하여 이 생에서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았을 것이며, 전생에 지어왔던 업을 인연하여 살아가고 있으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선업과 악업을 짓고 살며 늘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늘 부처님의 호念佛과 가피를 입고 있기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 7살 때까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로 인해 걱정이 많으셨던 모친은, 어느 날 한 스님으로부터 절에 폐리고 다니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를 폐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유달리 모친에게 집착이 강했던 저는 모친과 떨어지기가 싫어서 모친이 다니시는 곳은 거의 따라 다니며 저는 불법과 폐려야 면 수 없는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친과 절에 다니며 절을 꾸벅꾸벅 잘해서인지 짜증 많고 울보였던 저는 점차로 안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우연찮게 불교재단인 학교를 가게 되었고, 타의 반, 자의 반으로 특별활동 시간에 파라미타라는 불교부에 들어가면서 불교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학교근처의 절에서 인근 몇몇 학교 학생들이 불교부의 선후배가 되어, 주말마다 법회에 참석해 예불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교리를 배우고 수련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의 장, 단점을 보며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웃지 않았던 저는 늘 미소와 웃음으로 대해주는 선배들을 보며 그 모습을 좋아해 닮아가기 시작했고, 표정도 밝아졌으며, 표면적으로는 다소 모나고 내성적이었던 성격은 점차로 개선되어 두루 원만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문을 듣고 교리를 배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는 못했어도 늘 결림없이 자유롭게 살

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이왕이면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일을 하려는 마음을 내게 되었으며,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와 절을 통해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기도 하고,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며, 불, 법, 승 삼보에 대해 예경하고 불심이 더욱 깊어져,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인연들이 밀바탕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는 늘 도반이 있어서 같이 절에 다니며 신심을 더욱 발할 수 있었고, 마음 쓴과 행동, 말씨까지 차츰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나와 내 가족, 지인의 안위와 행복에서 점차로 내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지구 밖의 별들과 내가 다 느끼고 살진 못하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시방 법계의 모든 중생의 안위와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보는 시각이 변화하여 이렇게 발심출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덕분에 감사하게도 사미니계를 무사히 받고, 지금 이곳!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호거산 운문사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강원의 대중 생활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또는 수행을 통해서 알아채서 고쳤다고 여겼던 성격과 행동이 불쑥불쑥 나오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직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보며 기운이 빠지기도 하지만, 이 또한 과거나 현재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저를 알아채려 합니다. 강원 4년 동안 심신을 단련하고, 부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제행무상한 인생살이에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 불법을 만나 익히며, 신구의 身口意 삼업을 변화시키는 수행의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구경에는 부처님과 같아질 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무쪼록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호 아래 4년의 강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중생이 본인의 불성을 바로 알고 반야지혜를 드러낼 수 있기를~! 해탈 성불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삼계유여급정륜三界猶如汲井輪 삼계는 마치 우물의 두레박처럼 돌고 돌아
백천만겁역미진百千萬劫歷微塵 백천만겁의 많은 세월을 지내도다.

차신불향금생도此身不向今生度 이제 이 몸 금생에서 제도 못하면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견디어 참고 기다립니다 堪·忍·待

동호 / 사집파



堪 버릇이 된 모양인지 새벽 도량석이 올라가면 이내 펴뜩 눈이 떠집니다. 그러나 몸을 일으키고 정신이 차려질 때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몸이 몇 대 맞은 듯한 날도 있고, 도무지 정신이 안차려지는 날도 있지만, 청풍료에 불이 켜지기까지 기다리는 10분의 시간은 끌맛입니다. 더불어, 이때처럼 청풍료의 스님들이 멋있어 보이는 때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지난밤에는 남몰래 서려움을 삭였던 스님도 있고, 운력 덕분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스님도 있고,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이룬 스님도 있습니다. 스스로 고생을 선택하여 견뎌내며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간입니다.

수행자의 몸을 법기法器라고 부릅니다. 이곳 운문사에서의 시간들로 각자의 법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간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서 생김생김도 다르고 마음씀씀이도 다르고, 삶의 체험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당연히 크고 작은 풍파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견디어 내면서 그릇은 커지면서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는 ‘00감’이 됩니다. 장군감같이. ‘00’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갑니다.

크고 작은 꽃들과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만들고 산을 만듭니다. 키 큰 나무만 있다면 적막할 숲에 크고 작은 풀들이 있어서 여백을 채워줍니다. 민들레가 가진 세계와 후박나무가 가진 세계는 다르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의 온전한 세계입니다. 그 어우러짐이 만드는 찬란한 숲의 조화로 인해 숨쉴 공기가 얻어지고 모든 생명이 유지됩니다. 각자의 살아온 길과 보고 들어온 것은 다르지만 한 공간 속에서 있기에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 공부가 함께 있음으로 가능해집니다. 크고 작은 들꽃들은 화려하고 세련되지 않으나 은근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온갖 꽃들이 어우러지는 곳이 이곳 강원입니다.

忍 그릇이 커지는 일은 또한 지금의 그릇을 깨는 일입니다. 자신의 틀을 깨는 일은 커다란 아픔이어서, 심장(心)을 칼날(刃)로 도려내는 일입니다. 참는 것이란 자신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릇을 크게 만들도록 탁마해 주는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함께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제 그릇을 알 수 있을까요? 제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도반스님들입니다.

함께 사는 방법을 모르는 저는 그저 밖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문제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내가 멀찍이 팔짱끼고 나서는 문제에 대해 팔을 걷어붙치고 나서

는 도반스님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은 참아가며 솔선수범하는 도반스님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누가 참고 있는 것일까? 결국은 제 이기리己를 참아주는 도반스님들 덕분에 강원생활이 가능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스님들 덕분에 빼겨거리는 팔로 이곳에서 사는 일이 가능합니다.

마른 겨울 산길을 가면 바람결에 이곳저곳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들이 부딪치고 와중에 썩은 가지는 떨어집니다. 잘 여문 가지들이 남아서 내년을 준비합니다. 사시사철 잎이 푸르다는 소나무도 역시 새싹이 나오고 조용히 오래된 잎을 떨구어냅니다. 성장은 낡은 것을 떨어내는 중에 가능해집니다. 낡은 것을 쳐내는 일에 의연하고 또한 아픔까지 참아야 성장하게 됩니다.

待 1(조금 결을 척)에 寺(절사)가 합쳐 있습니다. 기다림을 풀이하면 무엇인가 행동行動하기 위하여 절에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준비를 갖추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에 있는 것은 빠빠하게 시간을 쪼개어 예불하고, 공부하고, 일하며 매순간 마음을 챙겨야 하는 수행입니다. 숨을 곳도 없이 자신을 내보여야 하는 이곳에서만큼 적나라하게 제 모습이 잘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배웁니다. 여태 해보지 못했던 공부입니다. 가끔 입술을 깨물며 눈물도 흘려야 하고, 배꼽 빠지게 웃게 되는 즐거움도 있는, 살아 있는 공부이며 기다림입니다.

‘감堪 인忍 대待’는 동산東山 스님(1890~1965)께서 승속을 불문하고 후학들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입니다. 요즘의 저에게 필요한 말이기에 새김해 보았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득기사소得其死所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자 시절 노스님께서 요즘 스님들은 공부를 안한다고 예전에는 왕복서까지 외우고 강원 가는 스님들이 많았다며 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스님’이 저를 지목한 것이 확실했기에 왕복서를 찾아봤습니다. 화엄경의 4조로 추앙받는 청량국사 징관 스님의 글이었고, 징관 스님께서 화엄경을 두고 “내가 이 몸을 바쳐 죽을 곳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곳이라!

출가할 때의 다짐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부터 공부해도 20년은 할 수 있지 않겠어?’ 지금이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그 때도 20년이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공부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며 살면 좋겠지요. 언제고 청량국사님의 화엄경과 같은 것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



Every Moment Is a Practice 매 순간이 수행이다!

Hyu Jong / Sakyogoa

휴정 / 사교과

영어문서 감수 : 대봉 스님(무상사 성산 국제 선 센터 조실스님)

영어문서 번역 : 지연 스님



Like most of the foreign practitioners I also met Korean Seon Buddhism thanks to the teaching of Zen Master Seung Sahn. So I decided to introduce how I use his the teachings in daily life adding some of my experiences and attitudes.

Mahayana Buddhism stresses the functioning of a bodhisattva What does that mean? Shortly, that means helping all sentient beings without being attached to anything. Acting correctly in all situations without attachment.

대부분의 외국인 수행자들이 그렇듯, 나 역시 승산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한국의 선불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약간의 내 경험을 덧붙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승산 스님의 가르침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하기로 하겠다.

대승불교는 보살행을 강조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하게 그것은 모든 중생들을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돋는 것을 뜻한다. 집착 없이 모든 상황에서 정확히 행하는 것 말이다.

Zen Master Seung Sahn Sunim was always teaching about keeping “correct opinion, correct condition and correct situation”. In his words: “It is very important that “my idea”, “my condition” and “my situation” disappear. Then your correct opinion, correct condition, and correct situation appears.” He was also saying that it is important to keep correct action moment to moment. I suppos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is teaching so here is an example which Seung Sahn Sunim always gave. When you see a hungry person, give him food. When someone is thirsty, let him drink. In such situations, you see a problem, you realize what is necessary to do and you do it. If you do not have any egoistic thinking, you do it just like that. You act with a clear mind without any obstacles. This is correct opinion, correct condition and correct situation. It is also correct action moment to moment. Without thinking. This is bodhisattva action. But if you have thinking, you will probably not

act like that. Usually we act according to our likes and dislikes. "I do not like this person, I do not want to help him."

승산 스님은 항상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상태, 올바른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승산 스님의 말씀을 빌자면 “‘내 생각, 내 상태, 내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상태, 올바른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승산 스님은 또한 매순간 올바른 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이 가르침의 예로써 “당신이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에게 음식을 주어라. 누군가가 목이 마르다면 그에게 물을 주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파악했으면 그것을 바로 행하면 된다. 어떠한 자기중심적 생각도 없다면 그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장애도 없이 분명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상태, 올바른 상황이다. 이것이 또한 순간 순간의 올바른 행이다. 생각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중심적 생각이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우리는 좋고 싶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람이 싫어, 나는 그를 돋고 싶지 않아”라고.

There is also another example from my own experience. People are throwing a lot of garbage everywhere. Even here in Unmunsa I see often papers and other garbage thrown on the ground by tourists. And when we pass and see this garbage what do we usually do? We just continue to walk, because someone else is going to clean it anyway. But is this correct? If we would not have any thinking than it should not be like this. There is garbage, we see it, we take it and throw away to the recyclables. Like this we can help to keep the temple clean and decrease the amount of garbage in our surroundings. And what is more, it is a great way of keeping the mind humble and cleaning it. Clean the nature clean the mind. For some strange reason I really do not like garbage in the nature, so picking up garbage from the ground also became part of my daily practice. It is a good way to train the correct action and get the habit of not following the egoistic way of thinking, and how not to get lazy.

나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상태, 올바른 상황 그리고 올바른 행을 사람들이 길에 버린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써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그냥 지나친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치울 거니까.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 우리가 어떠한 자기중심적 생각도 없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절을 깨끗이 유지하고 주변의 쓰레기양을 줄이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하고 그것을 깨끗이 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자연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여러 이상한 이유들로 나는 자연 속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이 참 싫다. 그래서 길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것 또한 내 일상생활 속 수행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것은 올바른 행을 훈련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또한 게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If there is a problem around us, we should not close our eyes, but we should try to find some solution. That is my rule I try to follow. Of course help according to our dispositions. Someone has dispositions to help old or sick people. Someone else to take care of nature, and so on.

Actually every action is a mirror of our practice. When we have egoistic thinking we just cannot act correctly. But if we keep Don't know mind moment to moment then every action is also correct. If you go, just go. If you talk, just talk. On the crossroads when you see red stop and when you see green go. And so on.

만약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되며 다만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정한 규칙이다. 물론 우리 각자의 성향을 따라야 하겠지만 말이다. 누군가는 늙고 병든 사람을 도와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자연을 돌봐야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말이다.

사실 모든 행은 우리 수행의 거울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마음’을 매 순간 유지한다면 모든 행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가고 있다면 그냥 가라.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냥 이야기하라. 교차로에서 빨간색을 보면 멈추고, 녹색을 보면 가라.

I just used the words Don't know mind. This is one of the most famous sayings of Zen Master Seung Sahn. But maybe there is someone who does not know exactly what he meant by that. Don't know mind is the mind before thinking. It is when your mind gets completely stuck. Usually when the thinking cannot go through some big question. For example hwadu or koan are such questions. These are not possible to answer by thinking. You must get before thinking to find the “answer”. Don't know mind is our original mind. So when we do something, we do it and in the same time keep the Don't know. That is practice according Seung Sahn Sunim.

‘모르는 마음’. 이것은 승산 스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중의 하나다. 하지만 승산 스님께서 그 말로써 무엇을 뜻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모르는 마음’은 생각 이전의 마음이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깊혀 있는 것이다. 보통 생각이 어떤 거대한 질문을 뚫고 나가지 못할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화두나 공안 같은 것이 그러한 질문들이다. 이것들은 생각으로 대답하기 불가능하다. 당신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생각 이전을 불잡아야 한다. ‘모르는 마음’은 우리 태초의 마음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모르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승산 스님의 수행 가르침이다.

Sometimes I hear from foreign sunims who are at Kibon Sonwon (basic seon training center), that we do not have time to practice at kangwon. Yeah it is true that we do not have so much time to do sitting meditation, but I do not agree that we do not have time to practice. Is there anything which is not practice? If we keep the big question, everything is a practice. Every movement and every single action is a practice. I try to take the time at Unmunsa as a challenge. Try to practice whatever happens. When you do something, just do it. Whatever you do, just keep Don't know.

가끔 나는 기본선원에 있는 외국인 스님에게 강원에서는 수행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가 앉아서 명상을 할 만큼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수행할 시간이 없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수행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화두와 같은 거대한 질문을 불잡고 유지한다면 모든 것이 수행이다. 매순간 하나하나의 행이 수행인 것이다. 나는 운문사에서의 매 순간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이 일어나든 수행하려고 한다. 무언가를 할 때 그냥 그것을 하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단지 ‘모르는 마음’을 유지하라.

During the day there are a lot of situations when many emotions can appear. Usually we get overwhelmed by emotions like anger, dislike or disagreement. When some strong emotions appear, I try to be aware of them. When we become aware of some emotion, we cannot be controlled by it anymore. When I get some emotion, I watch it. Where did it arise from? It arose from my small ‘I’ thinking. Why did it arise? It arose because there is ego. Who is that who feels it? Don't know. If we deeply realize that these emotions are empty, we cannot be

slaves of them anymore and can act correctly moment to moment.

하루 중에는 많은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보통 우리는 분노, 혐오, 의견충돌과 같은 감정에 압도당한다. 강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나는 그것들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그런 감정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은 그것들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는다.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나는 그것을 지켜본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지? 이것은 나의 작은 ‘나’라는 생각에서 나왔다. 왜 일어났지? 예고가 있으니까. 그것을 느끼는 것은 누구지? ‘오직 모를 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더이상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매순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In this writing I just shortly described ways of practice I use in the daily life and hope it will help you somehow or even give little bit of motivation. The first year can be difficult and you probably have many hard times. Please do not forget the practice. I wish you, that you could always practice with joy. It is not important to be perfect. Even though I wrote here some nice words, it does not mean I do everything perfectly. I do many many mistakes. My dobans could tell stories about that. It is important not to give up. Here are other Seung Sahn Sunim's words: "Try, try, try for ten thousand years!"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용하는 수행방법들을 짧게 설명했다. 치문반 스님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란다. 운문사에서의 첫 해가 특히 힘들 수 있지만 아마 앞으로도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항상 기쁨 속에서 수행하길 바란다. 완벽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비록 내가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는 많고 많은 실수를 한다. 나의 도반스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여기 승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다.

“하고, 하고, 끝없이 노력하라!”

Seung Sahn Sunim was alway stressing the bodhisattva way and teaching the importance of helping all sentient beings. So in the end I will use his words by which he always ended his teaching letters.

He always wrote: “I hope you only go straight don't know, which is clear like space, finish the great work of life and death, and save all beings from suffering.”

승산 스님은 보살도를 강조하고 모든 중생을 돋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가르치셨다. 그래서 승산 스님께서 법문의 마무리를 할 때 항상 하셨던 말을 끝으로 내 글도 마치겠다.

“여러분이 다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우주같이 명확하게 ‘오직 모른다’는 마음으로. 생사의 위대한 일을 마치고,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기 바란다.” ☺

Zen Master Seung Sahn Sun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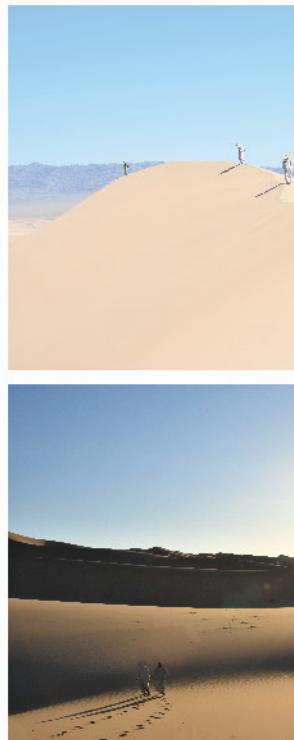


바람의 후예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다른 데도 많은데 왜 거기야? 그렇다. 난 왜 그 곳을 선택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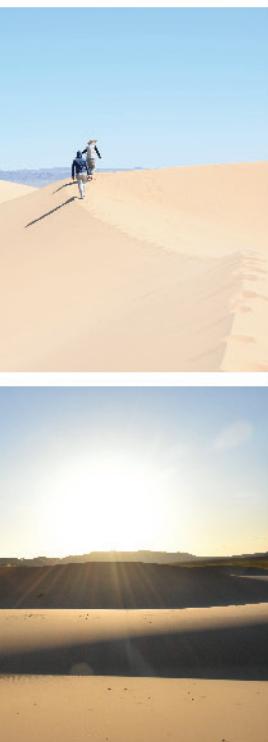
오늘날 우리는 편리하고 빠르며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상상만 하고 놓담하던 많은 일들이 이젠 원하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 시대에 몇 억 광년은 동떨어져 있는 듯한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바로 몽골이다. 몽골은 3시간 30분 가량 비행하면 갈 수 있는 이웃나라인데 참 멀고 다르게만 느껴졌다. 몽골은 현지인이든 여행객이든 절대 편안한 곳이 아니다.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 엄청난 일교차, 거기다 건조한 기후와 높은 고도 때문에 입술은 터지기 일쑤고 코 안엔 어느새 피딱지가 자리한다. 길은 끝없는 비포장도로에 모든 초원 한복판이 화장실이고 샤워는 5일에 한번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분명 보통 여행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대단한 건축물이니 으리으리한 박물관이니 화려한 축제들이니 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울릴 수 있을까?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매력적인 나라, 지금부터 짧고 짙게 몽골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 한반도의 약 7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진 몽골은 東으로는 대초원이 펼쳐지고 西로는 평균 3000미터의 고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백 개가 넘는 크고 작은 호수들이 즐비해 있다. 南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인 고비사막이, 北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툰드라(시베리아) 산림지역으로 이런 모든 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다. 몽골의 자연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인위적으로 보존, 보호된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다. 거친 땅과 혹독한 기후 덕에 사람이 자연을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지대가 높고 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되며 강수량이 적은 탓에 농사는 적합하지 못하지만 가축을 기르는 데는 초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천혜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야생 말, 소, 염소, 양, 냄타를 길들였으며 이를 특별히 오축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목생활을 하는 데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이동하고 그 횟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북쪽에는 겨울과 여름에 두 번, 중부지역은 4-6번, 남부의 고비지역은 물과 초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10회 이상 이동하기도 한다.

수천년 동안 냉혹한 자연을 견뎌내며 얻은 경험과 지혜로 거친 대지 위에 집을 완성했다. 이를 게르(Ger)라 부른다. 전통 이동식 가옥인 게르는 가족들이 1~2시간 정도면 조립, 해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이다. 먼저 나무로 뼈대를 둥글게 세우고 양털로 만든 펠트와 천을 씌워 끈으로 전체를 묶는다. 등근 형태이기 때문에 몽골의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초원이든 사막이든 게르를 세우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집이 되는 것이다. 게르 안은 요즘의 원룸처럼 한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한가운데는 화로를 놓는데 염소, 말똥이 그 연료가 된다. 평생을 가축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사는 유목민들의 지혜다.



예전에 어느 다큐에서 요즘 현대사회의 물질홍수를 비판하며 몽골가족과 일본가족이 가지고 있는 물건 수에 대해 비교한 바가 있었는데 몽골가족은 약 300개, 일본가족은 무려 약 600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지족이며 산다. 땅으로부터 자유롭고 능동적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수행하신 곳, 가르침을 퍼신 곳, 열반에 드신 곳은 모두 길 위다.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를 나는 몽골에서 봤다.

몽골의 푸른 초원이 눈앞에 펼쳐지고, 고비사막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있는 느낌. 마치 내가 어느 다큐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거대한 초원과 노니는 동물들의 모습들이 한눈에 쏙 들어오고 또 너무나 넓고 넓어서 오히려 가슴이 턱하고 막혔다. 내가 태어나 이렇게 광활한 대자연을 마주한 적이 있었나?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처럼 내 눈을 의심했다. 파란하늘에 맞닿아 있는 끝없는 초원과 사막엔 아무것도 걸림이 없다. 바람도 헛빛도… 그래서 몽골의 바람은 방향이 없다.

어느 날이었다. 바람이 한번 불면 눈, 코, 입 할 거 없이 온통 모래들이 들어가기 일쑤였는데 나는 그 모래바람을 막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초원 위를 뛰어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이를 봤다. 순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몸도 마음도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 아이 눈엔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사막의 모래언덕을 오를 때는 나약한 한 인간과 마주하게 된다. 겨우 한 발자국 내딛으면 모래가 흘러내려 반 발자국 뒤로 간다. 그렇다고 가만히 멈춰 있을 수도 없다. 너무 힘들어 잠시 쉬기라도 하면 내 발은 서서히 미끄러져 어느새 저 멀리 가 있다. 업을 따르는 길이 아닌 거슬러 가는 길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는 모래 위를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다 결국 온몸에 모래가 뒤엉키며 네 발로 기어 올라가 폭대기에 다다르면 나도 모르게 할 말을 잃어버린다. 사막이 내게 보여준 그 아름다움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으려 애를 쓴다. 또 홀연히 불어오는 바람에 시시각각 변하는 모래 모습들이 생로병사, 생주이멸 꼭 무상한 우리네 마음 같았다. 내려갈 때는 사막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사막은 계속 내게 말을 걸었다. 푸른빛과 황금빛이던 온 세상이 해가 지면 단 1m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깊숙해 우주 속에 나 홀로 떠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그것도 잠시 곧 온 별들이 내게로 쏟아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자연의 위대함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익혀오고 익숙해진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어지고 허망하게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를 만날 수 있어 신기하다 못해 신비스럽다. 보고 있어도 더 그리운 그런 곳이다.

몽골이 우리에게 말한다. 행복하냐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을 이루고 해냈다. 이제는 물질 풍족을 넘어서 물질 흥수의 시대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아직도 고통스러운 것인가. 지금까지 인간이 이루어낸 눈부신 발전들은 단순히 삶의 편리를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함이었다. 만약 자본이 아니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의약, 문화, 기술 등 모든 것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다. 발전은 인간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무수한 생명들을 앗아갔고 사람들에게 잔인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군가의 무엇을 빼앗았다는 것을 자꾸 망각한다. 이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시대다. 더 이상 인간의 기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엔 지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더해지고 더해져 이번 발전이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 만들 결과일 것이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사람들은 욕심을 원동력으로 삼아 세상을 만들었고 스스로를 이 세상에 가뒀다. 물질문명의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고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습관과 강박 속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 출가자의 삶은 다르다 말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은 무지無知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몽골 유목민은 세상 사는 방식이 달랐다. 처해진 환경과 살아온 세월을 통해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음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자연을 길들이고 지배하려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말한다. 자연은 잠시 빌려가는 자리니 고맙고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으니 스쳐가는 인연도 소중하다고 말이다. 그들에게 자연은 정복이 아닌 순응과 공존의 대상이며 생존 그 자체고 그대로가 삶인 것이다. 이젠 우리도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자유를 멈추고 뒤돌아봐야 한다. 앞으로 뒤따라 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아니 남기고 갈 수는 있을까?

나는 처음엔 어렸을 적의 꿈과 환상이라고 해야 할까 막연한 그리움 같은 것도 있었고 삶의 중독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한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보니 내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또 그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가게 된 이유, 정체된 삶이 아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대자유인의 정신을 느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바람의 나라 몽골, 나는 그들을 바람의 후예라 부르고 싶다. ☺



禪心初



다만 그 마음에 앉아 있어라

– 스즈키 선사의 「선심 초심」 –

동우 /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솔직히 나는 지독한 편식쟁이다. 비단 음식의 섭취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출가 전, 대단한 독서편력이란 것은 아니지만 제법 여러 방면의 다독가였다. 소위 쓸데없는 거 많이 아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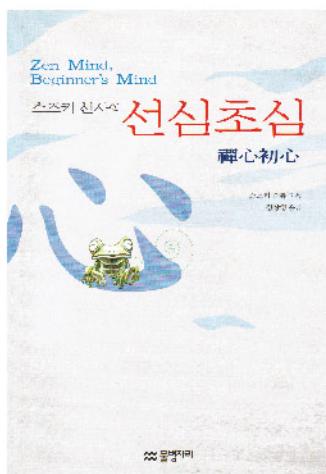
출가 후 불전을 접하면서 그 이전의 책들이 죄다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종용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겁게 오로지 내전만을 읽었다. 그리고 불립문자의 문덕을 꼬박 십년을 드나들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보니 이제 어떤 것도 시시하지는 않다. 다만 편식은 여전할 뿐.

이 책은 수년 전 해인사에서 안거를 해제할 무렵 ‘내가 교파서처럼 읽는 책’이라며 구참스님께서 건네준 것이다. 당시는 글을 아예 멀리하던 시절이었고 화두법만이 최고라는 아집에 빠져 있던 터라 일본 조동종 선사의 책을 꼼꼼히 볼 마음이 없었다. 이후 책장에 꽂아두고 가끔 눈길만 주던 것을 이런 기회에 새삼 집어 들게 되다니, 참 모를 일이다.

이 책의 저자인 스즈키 순류(鈴木俊隆, 1904~1971)는 1959년 55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간다. 당시 이 지역은 미국 주류문화에 반항하던 히피와 동양적 삶에 열광하던 젊은이들의 도시였다. 그는 마약 대신 좌선을, 열광 대신 수행을 권유하며 선모임을 이끌었고, 미국 최초의 조동종 선원인 타사하라 선원과 그 지부인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를 설립한다. 당시 좌선 명상 모임을 끝낸 후 이루어진 법문이 이 책의 초고가 되었다. 선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선 생활에 대한, 그리고 선 수행을 가능케 하는 태도와 이해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어떤 말이나 행동 없이도, 단지 그렇게 고양된 존재와 만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를 당혹스럽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깊게 만드는 것은 그의 비범함이 아니라 철저한 일상성입니다. 그는 단지 그 자신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거울이 됩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원고를 편집 정리한 스즈키의 가까운 제자인 트루디 덕슨의 말이다. 또 한 명의 스즈키인 스즈키 다이세쓰의 선이 극적이었다면, 스즈키 순류의 선은 평범했다고 말해진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업을 짓는 동시에 업에 끌려 다니는 것이며, 방석 위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중략) 이 순간에 행하고 있는 수행이 곧 깨달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원숭이와 같은 마음으로 목표 부근을 배회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선심禪心은 늘 초심初心과 맞닿아 있다.

“선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간직해야 합니다. 선 수행 내내 ‘나는 무엇인가?’라는 첫 물음의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초심은 비어 있고, 숙련자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습관에 물들지 않은 상태이며 어떤 가능성이든지 받아들이거나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 점진적으로 섬광처럼 만물의 본래면목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 갔다가 아주 우연하게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를 방문했었다. 나이 지긋한 미국인 거사님께서 센터 구석구석을 자세히 안내해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 중 한 가지는 복도 계단 벽에 그려져 있는 스즈키 선사의 새까만 그림자이다. 생전의 실물 크기 그대로 그려진 이 그림자를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실제 선사와 마주친 듯 깜짝깜짝 놀란다고 설명해 주었다. 내 기억이 멀쩡한 건지, 말을 제대로 알아듣긴 한 건지 확신할 순 없지만 당시 놀라는 시늉까지 해가며 설명하는 그의 말에서 스승에 대한 따뜻한 존경을 느낄 수 있었다. 스즈키 선사가 미국 땅에서 발견한 초심의 마음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래서 수십 년이 훌쩍 넘도록 이 수행처가 미국 복판에서 아직 존재하구나 싶었다.

“자유를 찾는 동안에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적 자유를 경험하려면 먼저 절대적 자유 그 자체에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적 자유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우리의 수행에서는 서쪽으로 십리 가는 것이 동쪽으로 십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가 없으면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동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서쪽으로 간다는 이원적 관념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앉아 있어라!’의 가르침에서 앉음이란 행주좌와 종의 한 가지 행동양식을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는 것,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처의 활동이다. 좌선은 모든 자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자세가 부처의 자세라는 것이 좌선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말하고 있다. 일단 목표라고 고정하고 방법이라고 확정해 버린 순간 ‘선심’도 ‘초심’도 잊어버리고 만다. 자기중심적이고 이원적인 관념이 절대적 자유와 온전한 집중을 통한 부처의 활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나는 갔다 왔네.

여산廬山은 안개와 비로 유명하고,

절강浙江은 들고 나는 물로 유명할 뿐.

그 뿐이라네.

선사가 가끔 인용하는 중국의 시 구절이다. 무심코 어느 페이지를 열더라도 허투루 넘길 말이 하나 없다는 것 또한 이 책의 미덕이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가는 한 노사의 자상한 안내서를 새삼 다시 읽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러웠다. ☺

왜 사랑해야 하나

기타를 조율할 때, 흔히 옆에 있는 줄의 음과 맞추는데, 조율하는 줄의 음이 기준되는 줄과 같아지면, 기준줄은 스스로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 줄의 공명현상이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비슷한 마음은 서로에게 울림이 있다. 마음의 공명현상이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된다. 스님들이 왜 이 무더운 여름 선방에 앉아 마음 한자리 맑히기 위해 정진하는지, 기도가 어떻게 효력이 있으며,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사랑과 진심을 담아 눈을 보고 말하면, 상대의 마음에도 공명현상이 일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지금
후회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 중

며칠 전 우리반 스님들과 보리뚱(보리수열매) 따기 울력을 했다. 어느 해보다 빨갛고 튼실하게 익은 열매를 보다가 문득 ‘졸업하면 이런 울력도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함께 웃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겠지’ 생각하니 조금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밭을 질질 끌며 돌아오던 치문, 사집 시절을 거쳐 이제 진짜 졸업반이 되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모래 같다.

울력이 끝나고 치문반 스님들이 하는 자색을 먹으러 갔다. 상추대궁까지 그대로 잘 부쳐낸 상추전을 먹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제 이 상추전도 마지막이구나…

사랑하는 자를 갖지 마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갖지 마라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못함도 괴로움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니라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자와 헤어짐은 불행이니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속박이 없나니

법구경 (210-211)

기타를 조율할 때, 흔히 옆에 있는 줄의 음과 맞추는데, 조율하는 줄의 음이 기준되는 줄과 같아지면, 기준줄은 스스로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 줄의 공명현상이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비슷한 마음은 서로에게 울림이 있다. 마음의 공명현상이다. 감동받은 마음은 비슷한 상대에게 가슴 뭉클함을 전달한다. 먼저는 심장에서 반응하여, 멀리 있게 되고 눈빛도 온화해진다. 바다 건너 저 멀리까지도 그 에너지 파동은 전달될 수 있다고 한다. 하물며 가까운 곳이야 말할 것도 없다. 큰방파 지대방에 용기종기 모여 24시간 함께 지내는 우리 반은 서로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

혹 주변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가? 그렇다면 그건 내 마음을 거울처럼 비춘 결과다. 모든 마음은 본성(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의 변화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된다. 스님들이 왜 이 무더운 여름 선방에 앉아 마음 한자리 맑히기 위해 정진하는지, 기도가 어떻게 효력이 있으며,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현대의 양자물리학이 증명하고 있다. 사랑과 진심을 담아 눈을 보고 밀하면, 상대의 마음에도 공명현상이 일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연의 굴레 -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연인 등 - 수없이 많은 관계 가운데에 살면서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감정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차분히 감정이 일어남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그야말로 감정의 소용돌이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一喜一悲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윗돌처럼 무덤덤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눌려 참으면서 수행이라고 여기는 것도 우습다. 양극단에 치우쳐 집착하고 속박되는 고통의 삶을 경계하는 것이다.

바다 바라보는 것을 참 좋아한다. 바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나보다 하늘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질투하지 않는다. 바다를 바라보듯 걱정 없이 사랑하면 어떨까?✿

운문소식



▲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 단오산행



▲ 논산 연무대 수계법회



▲ 결계포살



▲ 제37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 5월 1일 대구지역 교사불자회(회장 : 김상만) 창립20주년 기념법회가 비로전에서 열려, 일진 화장스님께서 '처음 마음 그대로'라는 주제로 법문해 주셨습니다.
- 5월 18~27일 회주 스님을 모시고 어른스님들께서 9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치문반 스님들과 소임스님들이 근념하였습니다.
- 5월 31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6일 선열당에서 열린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로 대중스님들과 명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6월 8일 단오를 맞아 대중스님들이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6월 11~12일 사)동련 30주년 기념법회 및 제6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길' 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에 대중스님 5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6월 18일 화암 스님 염불의례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4일 여름철 결계포살이 대웅보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6월 26일 '한국불교의 세계화, 그 이념과 실천' 이란 제목으로 정병조 교수님 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일 여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2일 회주스님께서 논산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 수계법사로 설계해주셨습니다. 이번 법회는 제26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어른스님들과 화엄반스님들, 동문화장단(회장 : 종호 스님) 스님들, 26회 동문스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7월 3일 대자원 법회가 있었습니다.
- 7월 7~9일 퀸오민 교수님 초기불교 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7월 8일 학인스님들의 여름철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8일 최용천 교수님 특강이 '불교 문화재와 운문사 장엄물' 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7월 22~24일 '평가링가 육도 탈출' 이란 주제로 제37회 어린이 여름불교 학교가 열려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7월 26일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관장 27회 정관 스님) 종교인 초청특강이 일진 화장스님께서 '용기'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 7월 28일 自恣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7월 29일 35일간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덕인 스님 • 정해옥 • 노기용 • 이기태 • 보덕장학회 • 이정숙
- 이박일 • 전승민 • 구윤희 • 권오웅 • 배종옥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금당 金堂



운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요사채(1922년 건축)로 전체가 괴목槐木입니다.
금당이란, 원래 본존상을 모신 법당을 말하지만,
운문사에서는 사교반 스님들이 간경하는 공간입니다.
뒤쪽으로 대웅보전의 어간과 정확히 일치해서 비로자나부처님이 보이고,
앞으로는 석등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바람이 통합니다.
이 여름, 금당의 문처럼 활짝 열려서 부처님을 뵙고 무장무애無障無礙하시길.

운문지에도 앞뒤로 문을 달았는데, 시원하신가요?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